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리미양수도 부산

#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 동남권 관문공항이 답입니다!

♿ 장애물 없이 안전한 공항

🕒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확장성 있는 공항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체육  
2020 03+04 Vol. 24

2020. 03+04  
Vol. 24

# 부산체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 Sport Spirit

스포츠 정신

겸손한 승리자,  
당당한 패배자가 될 것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발행일 2020년 4월 10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24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장현찬,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디자인기획 대훈기획(T. 051-898-0330)



## 스포츠, 삶을 말하다

### 04 프롤로그

#### 사람 & 열정의 온도

- 06 소동·화합·클린 키워드로 제2의 부산발 축구붐  
부산시축구협회 최철수 회장

#### 잠재력 가득 스피릿

- 10 설원 달리는 빛나는 너  
알파인 스키 꿈나무 대표선수를 꿈꾸다, 최범근 선수

#### 톡톡동호회

- 14 검도동호회 청검회

#### Hot Issue

- 16 겨울이면 더 뜨거워지는 스포츠 축제의 함성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스포츠 전국 투어

- 20 한국 스포츠 메카를 가다  
서핑 핫스팟 강원도 양양군



## COVER STORY



## SPORT SPIRIT

스포츠 정신

자기 한계를 경험한다.  
그 한계를 넘어선다.  
연달아 치르는 바다수영, 사이클, 마라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 없다.  
외로운 싸움, 혹독하지만 도전해볼 만하다.  
나를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 철인3종

## 스포츠, 깊이를 보다

### 스페셜 특집

- 24 부산, 마린 스포츠 허브로 가는 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선임연구위원

### 이슈 & 포커스

- 28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30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 기념식  
31 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32 부산탁구체육관 개관식  
33 2020 부산광역시 실업팀 선수단 시무식

### 부산체육의 발자취

### 건강IN 헬스A

- 36 코로나19 이것이 궁금하다

### 40 국민건강체조

### 중인 스포츠

- 42 철인 3종 경기(수영, 자전거, 달리기)

### 문화 스펙트럼

- 46 철인 3종 관련 책과 영화



## 스포츠, 행사를 담다

### 체육회 & 단체

- 48 구·군체육회  
52 부산공공스포츠클럽

### 53 단신 뉴스

### 센터 info

- 58 부산국민체육센터  
60 북구국민체육센터  
62 영도국민체육센터  
64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S

## Spirit



### 스포츠 정신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본질적으로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한계치를 밀러 올리고 버터내는 것  
한계치를 넓히고 높이는 과정, 극한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시간  
그 속에서 예전과 다른 나를 만나는 순간  
경험해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짜릿한 성취감

# T

# S



## 소통 · 화합 · 클린 키워드로 제2의 부산발 축구붐



*Busan  
Football*

### INTERVIEW+01



## 부산시축구협회 최철수 회장

유년시절부터 축구에 재능과 열정이 남달랐던 그다.

13년간 모교 축구회 후원회장에 이어 2017년부터 부산시축구협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부산 축구 발전에 힘을 보태온 그가 지난 1월 17일(금)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축구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순수한 열망에서 시작한 축구와의 특별한 인연을 47년째 이어온 최철수 회장, 집무실을 찾았을 때 ‘도광양晦(韜光養晦)’라고 쓰인 현판이 눈길을 끌었다. 재능,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다.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글귀를 보며 숨을 고른다는 최 회장, 그가 들려주는 부산 축구의 청사진에 주목한다.

### 세심하게 지켜야 할 약속, 자금과 운영의 투명성

경남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창단 멤버이자 주전으로 활약한 최철수 회장의 꿈은 축구선수였다. 빠듯한 집안 형편에 재능만으로 축구선수를 꿈꾸기엔 냉정한 현실, 일찌감치 사회인이 된 최 회장은 1991년 창립 멤버 5명과 아진일레트론을 창업한다.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모교 축구부부터 찾았다. 경남공업고등학교 축구부 후원회장을 맡은 지 벌써 13년째, 후배들이 맘껏 축구를 즐기며 꿈을 이뤄가길 바란 최 회장, 부산시축구협회와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부산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했어요. 축구협회 소속이 돼 보니 부산 축구의 열악한 현실이 확연히 보이더군요. 내가 결정권자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시도는 어땠을까 등 그동안 생각이 많았지요. 부산시축구협회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협회 회장까지 맡은 걸 보면 내 인생의 동력은 축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선거 출마로 전임 회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였다.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터라 최철수 회장의 임기는 10개월. 마음은 급하지만 서두르진 않겠다. 그간 놓치고 있던 일부터 차근차근 풀이갈 생각이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뉜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일은 제가 해야 할 숙제죠.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부산 출신 원로 축구선수들을 모신 것도 소통과 화합의 일환이었어요.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예산 집행 명세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협회 운영과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봐요.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오해나 갈등은 사소한 데서 비롯된다. 수십 년 사업을 운영하거나 단체를 이끌면서 느낀 경험치를 보면 그랬다. 애초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는 취임하자마자 운영과 자금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을 발 빠르게 진행했다.



**부산 축구 발전 이를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

“과거 부산은 전국에서 축구 열기가 최고였어요. 부산 아이파크의 전신인 대우로얄즈가 K리그를 호령할 때 구덕운동장은 인파가 붐비는 축구의 성지였죠. 또 부산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당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 첫 승’을 안겨준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해요. 자연스레 축구 인기는 동호회로 스며들었고 축구인도 넘쳐났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팀 성적은 떨어졌고 6대 도시 중 부산만 전용 축구장이 없다는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뜨겁던 축구 열기도 점차 사라졌죠.”

한참 과거 회상에 잠긴 최 회장은 지난해 참여한 부산 축구 전용 경기장 조성 토론회 얘기를 들려줬다. 다행히 최근 부산 아이파크가 K리그1에 승격해 기대감이 부푼 상황,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힘이 실리는 적기는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다는 그다.

“뭐니 뭐니 해도 부산 축구인들의 염원이자 숙원은 축구 전용구장 건립이겠죠.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은 상황이에요.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한 목소리를 내는 부산 시민들의 간절함이 크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석과 검토 작업을 거쳐 흑자를 내는 전용구장을 만들어야죠.”

부산시축구협회 회원 중 대다수는 생활체육인으로 이들에게 절실한 건 저렴한 상시로 이용 가능한 축구장이다. 최 회장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축구장 확보에 더 골몰했던 이유다. 최 회장은 인수위원들과 축구시설 현황 지도를 그리는 중이다. 기장군에 월드컵빌리지와 대저1동에 강서체육공원 등 지역 내 축구시설을 살피고 있다. 발품을 팔아 현장을 찾아다니며 답을 찾는 그다. 부산FC축구단이 운영 중인 멘티와 멘토운동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1~3세대 축구 전문가 예를 들면 임태주 전 국가대표나 이차만 전 국가대표 감독 등 원로 50명이 축구 꿈나무에게 1대 1로 축구수업을 해주는 멘티와 멘토운동은 축구 전문 퇴직자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 사단법인화 추진도 계획 중이다. 사단법인화가 되면 부산 축구 발전에 뜻은 모은 기업들의 후원이 쉬울 테고 모인 기금은 부산 축구 발전을 돕는 값진 자양분이 될 테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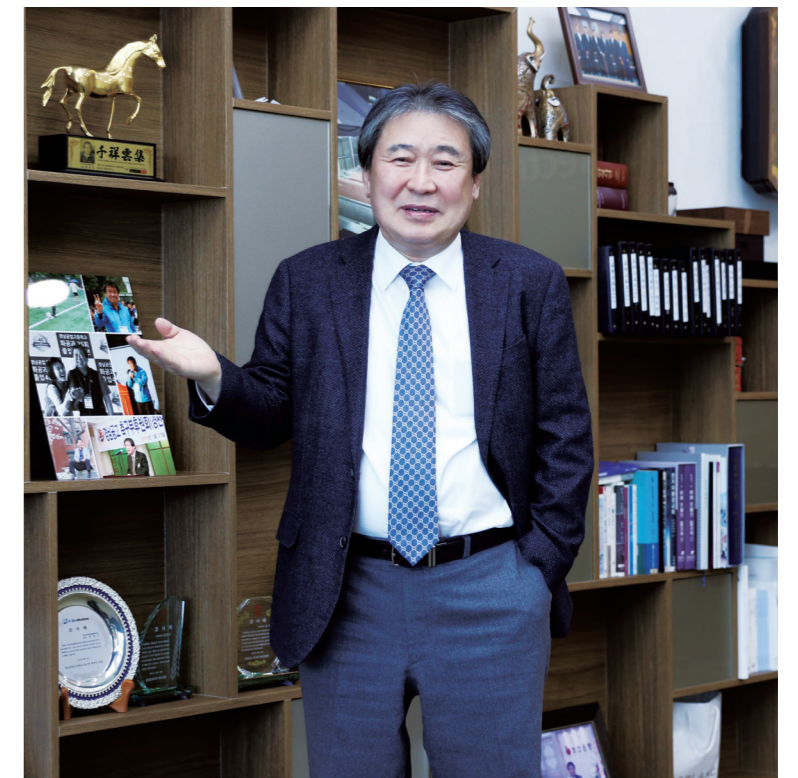


**낮출수록 높아지는  
결양의 미덕 갖춘 리더로**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운동입니다. 저마다 기량이 다른 선수들이 각자 실력을 뽐내기 위한 플레이를 한다면 결국 경기를 망치겠죠.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의미 있다는 걸 축구는 보여줍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소리만 내세운다면 조직이나 단체를 원활히 끌어갈 수 없지요. 거리낌 없이 소통하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가 필요할 땐 주저 없이 물러나는 모습 참 멋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닌 주위에서 세워주는 리더, 제가 꿈꾸는 리더상입니다.”

축구에서 삶의 통찰을 얻는다는 최철수 회장, 가슴 속에 품어온 협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 짧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독심 있게 밀어붙일 요량이다. 먼 곳을 내다보고 지금 주어진 일을 묵묵히 이행하는 추진력, 충분히 많은 의견을 수렴하되 밀고 나갈 때는 목표 지점만 바라보는 맹렬한 실천력에 가속도가 붙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갈고닦은 최철수 회장, 그가 펼칠 소통, 화합, 클린 행정 기대되는 이유다.

“거리낌 없이 소통하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가 필요할 땐 주저 없이  
물러나는 모습 참 멋지지  
않습니까.”



INTERVIEW+02

# 설원 달리는 빛나는 너 스키는 나의 힘! 스키는 내 운명!

알파인 스키 꿈나무  
대표선수를 꿈꾸다,



## 최범근 선수

네 살 때 가족끼리 놀러 간 스키장에서 처음 스키를 접했다. 레슨을 시작한 건 다섯 살, 한 달 일정의 스키 캠프에 참여한 건 여섯 살 무렵이다. 3박 4일 실컷 스키장에서 놀다가 집에 갈 무렵이면 자기는 놔두고 가라며 떼를 썼던 아이는 이제 열두 살, 알파인 스키 대표 유망주로 손꼽히는 최범근 선수다. 어느 또래들처럼 게임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5학년, 천진난만하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인데 스키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진다. 확고하고 진지하다. 최범근 선수에게 숙명처럼 다가온 스키 얘기가 무르익는다.

## Busan Ski



### 스키 유망주,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능 남달라

“범근이는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와 스키 강습을 받았어요. 아이가 균형 감각이 남다른 애길 자주 들었죠. 좋아하고 잘하니 부모로서 지원해주고 싶더군요. 아이가 어릴 땐 가까운 전북 무주 스키장을 갔고 선수 생각을 한 후로는 강원도 용평스키장을 찾았어요. 거긴 봄까지 스키장에 눈이 있었거든요. 12월 초부터 3월까지 내내 스키만 탔죠. 여덟 살에 범근이가 그토록 바랐던 선수 등록을 했어요.”

부상이 잦은 스키 선수의 생활, 부모로서 고민이 많았다. 어린 나이에 꼭 이루고픈 꿈이 있는 게 대견했지만 스키 선수의 미래나 전망은 어떤지 그려봐야 했다. 그토록 진지하고 간절한 꿈이라면 ‘날개를 퍼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에 방점을 찍은 최 선수 어머니. 아이는 걱정했던 것보다 적응이 빨랐다. 오랜 기간 집을 떠나 스키 타기에 몰두하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애길 꺼내지 않았다. 2학년 가을에는 중국으로 3학년에는 미국과 프랑스로 4학년에는 미국과 캐나다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한 번 나가면 한 달을 넘기는 일정이었다. 한창 어리광 피울 나이에 아이는 입버릇처럼 “스키만 탈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시험 삼아 과한 숙제를 내줘도 일사천리로 해내는 걸 보고 최 선수가 가야 할 길이 ‘스키’라는 걸 다시금 절감했다고 한다.

“쇼트트랙 선수도 했는데, 범근이는 결국 스키를 택하더군요. 워낙 스피드를 즐기는 범근이가 스키 익히는 속도도 참 빨랐어요. 범근이는 스키 선수로서 체격조건이 좋지 못해요. 키도 작은 편이라 제일 짧은 스키를 타거든요. 경기 될 때 불리하지만 현재 조건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조절하면서 백분 기량을 발휘하는 걸 보면 어디서 저렇게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부산시스키협회 윤설호 총감독은 “최 선수는 부산 스키계에서 모처럼 눈에 띄는 두각을 나타낸 선수예요. 올해 4학년으로 참가한 동계체육대회에서 자신보다 큰 체구의 고학년 선수들을 이기며 은메달 2개를 획득해 모두를 놀라게 했죠. 다음 제102회 동계체육대회에서는 다관왕을 예상할 정도로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키는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4년 연속 종합 5위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종목이다. 눈이 오지 않고 훈련장이 없는 부산에서 스키 종목이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부산시장배, 교육감배대회에서 발굴한 꿈나무 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육성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여섯 바늘을 꿰매고 간신히 초등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뛰었는데 1, 2학년부에서 1등을 했어요. 부상을 당하고 보니 오기랄까, 더 잘하고 싶었죠.”

**세계 탐이 될 때까지 알파인 스키 새 역사를 쓸 터**



최 선수 어머니는 우연찮은 기회에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순간부터 열렬히 지지, 응원하느라 모든 일상과 일정은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지치지 않고 진짜 스키를 즐기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 벅찬 뿌듯함이 그간의 수고로움을 덮는다고 했다. 몸집이 커지면서 풀을 갖고 편치하듯 깃대를 치고 넘기는 경기를 준비해온 최범근 선수, 동작이 자연스럽게 강약 조절이 되기까지는 많은 준비와 연습을 요했다. 통상 4학년 때는 깃대에 풀을 갖다대는 수준인데 경기에서 완성도 있게 해내는 걸 보며 감독이나 선수들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대한민국 알파인 스키의 자존심이자 아시아에서 단연 탐인 정동현 선수가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걸 보면 자랑스럽다는 최범근 선수의 목소리에 생기가 돈다. 정동현 국가대표 선수가 걸어간 길은 최범근 선수에게 탄탄한 이정표다. 회전이 주 종목인 최 선수가 이를 내일의 꿈, 아니 최 선수가 넘어설 미래의 꿈이다.



**알파인 스키를 향한 확고한 목표는 삶의 원동력**

눈이 오지 않는 비시즌에는 자세 훈련이나 트레이닝 운동 등 지상훈련을 주로 한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운동을 겸하는데 복싱, 플라잉요가로 몸 만들기에 집중한다. 6월에서 8월은 전지훈련 시즌, 만년설이 있는 외국으로 간다. 그리고 12월부터 3월까지 국내에서 스키를 탄다. 작년 가을에는 경기도 포천에 생긴 잔디스키장을 주말마다 갔다. 얼추 따져보니 작년 6개월가량 스키를 탄 셈이다. 어릴 때부터 훈련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리며 추억 쌓는 시간이 부족했던 터라 훈련을 마치는 3월이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을 마련한다는 최 선수 어머니, 1학년 때부터 범근이가 소속된 BSC(bros ski club) 팀의 형과 누나들이 가족만큼 최 선수를 살뜰히 챙기고 걱정해주는 ‘스키 가족’이다. 지금껏 팀에서 막내라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최 선수 밑으로 동생이 들어왔다. 어린 동생을 살뜰히 챙기고 친구가 돼 주는 최 선수를 보면 스키로 인연을 맺은 특별한 가족을 만났구나 싶다.

“2학년 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나갔는데 시합 직전에 연습하다 넘어져서 스키 날에 손이 찢어졌어요. 눈발에 피가 많이 묻어서 놀라긴 했죠. 같은 팀 누나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로 내려왔어요. 감독님이 아무래도 시합을 뛰기 힘들겠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경기만 뛰게 해 달라고 울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 같아요. 서둘러 병원에 가서 여섯 바늘을 꿰매고 간신히 초등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뛰었는데 1, 2학년부에서 1등을 했어요. 부상을 당하고 보니 오기랄까, 더 잘하고 싶었죠. 그런데 1등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잊지 못할 그날을 회상하는 최 선수의 단기 목표는 올해 꿈나무 대표선수가 되는 것이다. 5학년 때부터 선발에 참여할 수 있어 올해 거는 기대가 크다.



**주요 경기 메달 기록**



- 50회 대한스키협회장배
  - 회전 금메달
  - 대회전 금메달
  - 복합 금메달
  - 슈퍼대회전 은메달
- 47회 전국학생스키협회
  - 회전 금메달
  - 대회전 금메달
- 3회 웰리힐리배 전국알파인스키대회
  - 회전 금메달
  - 대회전 은메달
- 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슈퍼대회전 은메달
  - 대회전 은메달

# 검우<sup>劍友</sup>와 함께 나누는 교검<sup>交劍</sup>,

## 그 안에서 평생 검도의 길을 꿈꾸다

검도동호회 청검회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검도장인 대원관(大圓館). 높은 천고, 두껍고 탄탄한 목재 마룻바닥, 가지런히 놓여 있는 도복과 호구, 죽도들... 옷이 검도만을 위해 만들어진 이곳에는 절도 있는 기합 소리와 검사(劍士)들의 열정이 가득하다. 대원관의 오랜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검도인들 그리고 청검회가 있기 때문이다.

### ● ● 대원관의 역사를 이어가는 청춘들

대한민국 검도의 전설인 범사(範士) 9단 고(故) 도호문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검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대원관과 청검회. 청검회는 대원관원 중에서도 기초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려, 서로 화합하며 더 오랜 시간 함께 검도를 하기 위해 생겨났다. 자연스럽게 젊은 검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혼자 수련할 때보다 실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전국 대회는 물론 부산광역시 대회에서 받은 상을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부산광역시장기 종별검도대회에서도 저희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29회부터 35회까지 일반부 단체전에서 7연패를 기록했죠. 2018년에 열린 38회 대회와 작년 대회에서도 우승했고요. 대원관의 이름으로 참가하긴 했지만 5명의 참가자 가운데 청검회 멤버가 3명이예요.” 현재 청검회 회장인 김원규 사범의 말에는 당당함과 자부심이 녹아 있었다. 대원관의 연승 행진에 청검회의 청춘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작년에는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검도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해 청검회의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도 거머쥐었다. 청검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순간이었다.

### ● ● 검도를 향한 열정, 오직 그것뿐!

“지금 청검회 인원은 총 30명 정도예요. 평일에는 개인운동을 하고 매달 1, 3주 토요일 4시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데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주로 모여서 운동하죠. 여성분들도 계시고요. 20대가 주로 모이다보니 때때로 시간 조정도 하면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용훈 사범은 청검회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자유롭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단종이 없어도 OK.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도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청검회는 청년층 사범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실제로 첫 수련을 청검회와 함께 시작해서 2년까지 오르게 된 회원도 있을 정도다.

“격투기 같은 운동은 나이에 제한이 있거나 키갈이 타고난 신체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검도는 달라요. 신체적인 밸런스보다는 수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련만 열심히 한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를 이기거나 초보자가 고단자도 이길 수 있다는 게 검도의 매력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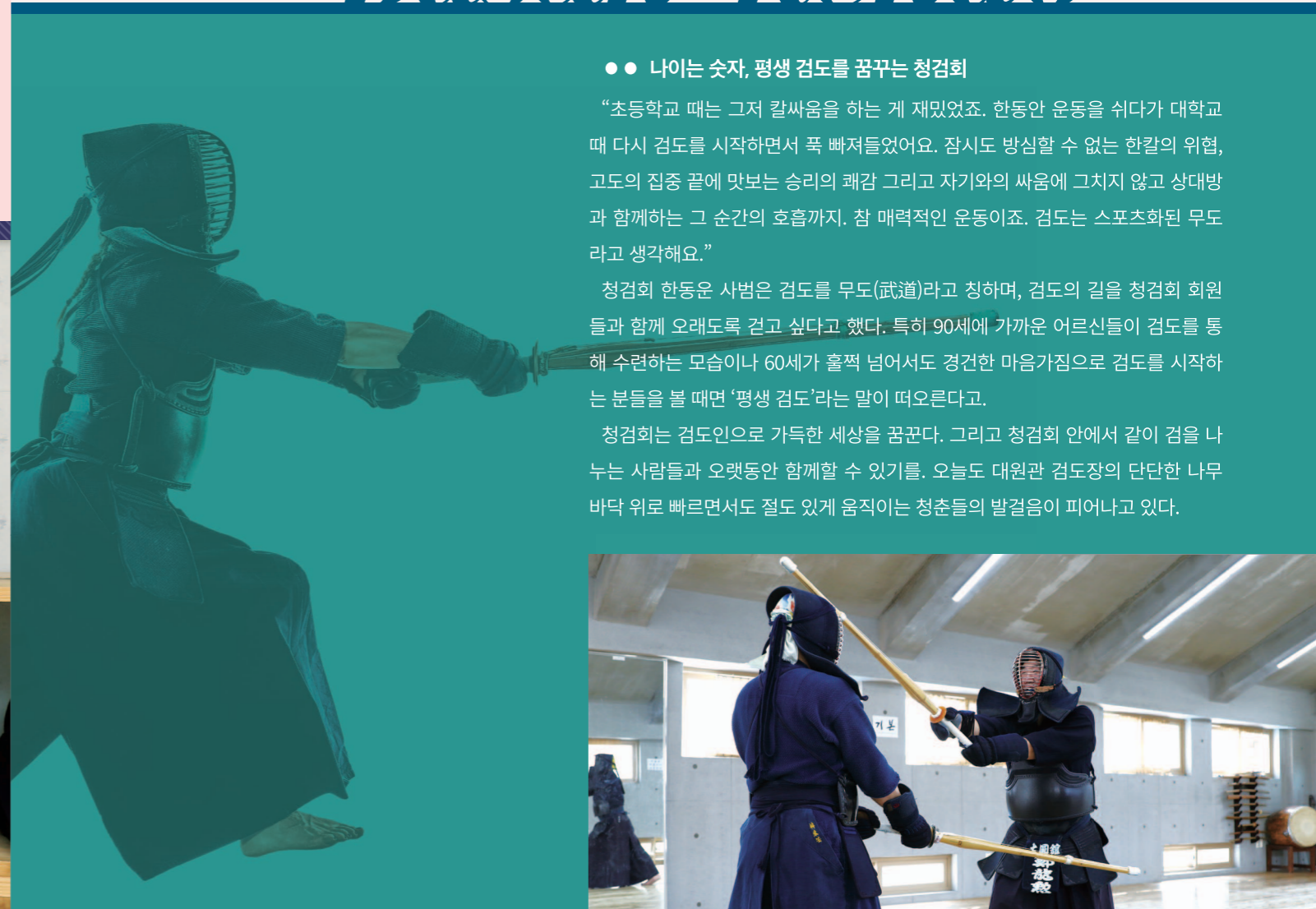
# Busan kendo

### ● ● 나이는 숫자, 평생 검도를 꿈꾸는 청검회

“초등학교 때는 그저 칼싸움을 하는 게 재밌었죠. 한동안 운동을 쉬다가 대학교 때 다시 검도를 시작하면서 푹 빠져들었어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한칼의 위험, 고도의 집중 끝에 맞보는 승리의 쾌감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그 순간의 호흡까지. 참 매력적인 운동이죠. 검도는 스포츠화된 무도라고 생각해요.”

청검회 한동운 사범은 검도를 무도(武道)라고 칭하며, 검도의 길을 청검회 회원들과 함께 오래도록 걷고 싶다고 했다. 특히 90세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검도를 통해 수련하는 모습이나 60세가 훌쩍 넘어서도 견직한 마음가짐으로 검도를 시작하는 분들을 볼 때면 ‘평생 검도’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청검회는 검도인으로 가득한 세상을 꿈꾼다. 그리고 청검회 안에서 같이 검을 나누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기를. 오늘도 대원관 검도장의 단단한 나무바닥 위로 빠르면서도 절도 있게 움직이는 청춘들의 발걸음이 피어나고 있다.





# 겨울이면 더 뜨거워지는 스포츠 축제의 함성

##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매섭다. 추운 겨울을 잊게 한 건 선수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기 때문이었고 매력 넘치는 겨울 스포츠 축제 덕분이었다.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대회인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올해로 101회째를 맞았다. 지난 2월 18일(화)에 시작해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에서 펼쳐졌다. 16개 시도에서 참가한 7종목(정식 5, 시범 2) 3,850명의 선수단(선수 2,645명, 임원 1,205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부산선수단은 14년 연속 종합순위 5위를 달성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개폐회식은 열리지 않았다.



### 부산체육 꿈나무 대대적인 활약상 선보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의 경기 종목은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총 7가지(정식 종목 5가지, 시범 종목 2가지)다. 이번 대회에서 스키 경기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스키는 알파인의 강영서(한국체대) 선수가 여자일반부 대회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크로스컨트리 정마리아(부산진여고) 선수가 여자고등부 프리 10km에서 정상에 올랐다. 강영서 선수는 회전과 슈퍼대회전, 복합에서 은메달 3개를 추가했다. 정마리아 선수는 복합에서 은메달, 클래식 5km와 15km 계주에서 각각 동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크로스컨트리 종목은 눈이 덮인 평지와 경사로를 달려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는 경기다. 눈 덮인 평지와 언덕이 많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 이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환경이 열악한 부산의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낸 걸 보며 국내 스키계가 깜짝 놀라는 분위기다. 사전경기로 열린 피겨 남자중학부 싱글 D조에서 박동현(동래중) 선수가 이번 대회 첫 금을 부산선수단에 안겨줬다. 특히 이번 대회 알파인에서는 남자초등부 최범근(동성초등)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최범근 선수는 대회전과 슈퍼대회전에서 소중한 은메달 2개를 획득, 부산이 종합 5위를 하는데 힘을 보탤했다. 초등 4학년인 최범근 선수는 초등 5·6학년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이며 부산 스키계의 꿈나무 선수 중 단연 선두임을 증명했다.



“ 추운 겨울을  
잊게 한 건  
선수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기 ”



**여건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다**

빙상 불모지인 부산이 이번 대회 컬링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기적 같은 일이었다. 부산컬링협회는 지난 2월 12일(수) 경기도 의정부컬링센터에서 열린 컬링 남자 일반부 4강전에서 서울시청에 1-16으로 크게 졌다. 하지만 1회전에서 충북컬링경기연맹을 꺾은 부산컬링협회는 2회전 전북 대표 전북컬링경기연맹과의 경기에서 6-5로 짜릿한 승리를 거둬 동메달을 확보했다. 부산컬링협회 전무이사이자 플레이코치로 활약하는 이규현 전무는 “최근 다른 시도 체육회사 시도청 소속 선수들은 전용 경기장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캐나다 등 해외 전지훈련도 수시로 다녀오고 있다”며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 부산에서 실업팀은 동호회 수준의 선수로 구성돼 있고 하루 2시간도 채 연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건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은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2개 종합득점 456.5점으로 5위에 올랐다. 동계스포츠를 평정하기엔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선수단은 14년 연속 종합순위 5위라는 좋은 성적을 냈다. 여건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기량을 쌓고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지속한 부산선수단, 그들이 일군 값진 결실이다.



**BUSAN SPORTS**



**대한민국 체육계 밝은 미래,  
총 28개 대회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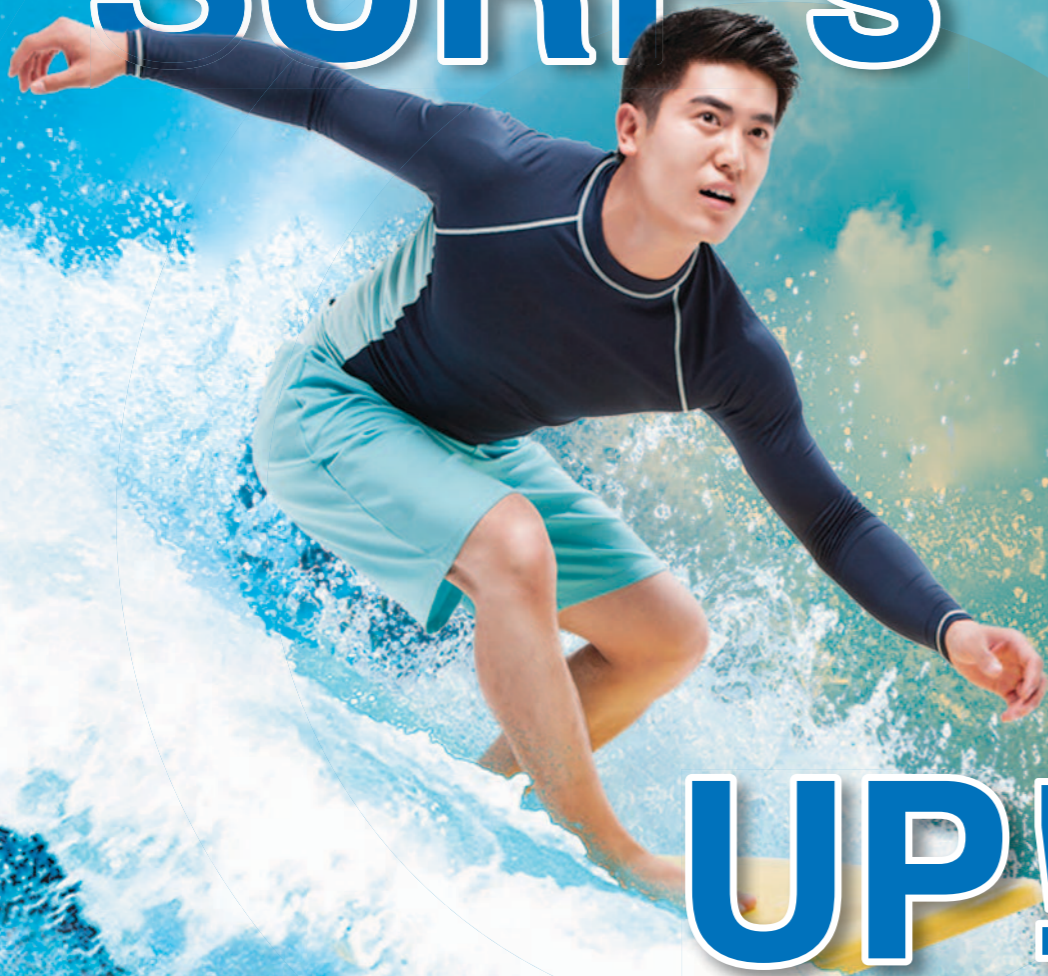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는 힘든 공백기를 딛고 돌아와 대회 2관왕을 달성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한국기자연맹 기자단 투표에 의해 선정됐다. 여자 일반부 1,000M, 1,500M에서 2개의 금메달을, 3,0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심석희 선수는 8년 만에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임을 증명했다. 이번 대회는 특히 대한민국 동계스포츠를 이끌어온 선수들이 세계적인 두각을 드러낸 자리로 더욱 빛났다. 빙상 스피드 박지우 선수는 매스타트·1,500M·3,000M·6주(팀추월)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4관왕을 달성했다. 빙상 스피드 허지안 선수와 스키 알파인 이경민 선수 그리고 최예린 선수와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박희연 선수 등 꿈나무 선수들이 4관왕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내며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4관왕 7명, 3관왕 22명 등이 배출됐고 빙상 스피드 4개, 빙상 쇼트트랙 24개 등 총 28개의 대회신기록을 냈다.



제 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순위						
순위	시도	총득점	금	은	동	메달합계
1	경기	1,309.5	97	88	70	255
2	서울	931	41	57	62	160
3	강원	793	46	41	43	130
4	전북	590	27	26	16	69
5	부산	456.5	3	6	12	21
6	대구	416.5	8	7	17	32
7	인천	338	12	5	6	23
8	충북	287	7	3	7	17
9	경북	285	9	5	5	19
10	전남	266	3	2	8	13
11	광주	233	0	1	1	2
12	충남	137.5	4	4	2	10
13	경남	110	0	2	1	3
14	대전	106	1	1	6	8
15	울산	54	1	3	2	6
16	세종	36	3	2	0	5
합계		6,349	262	253	258	773



# SURF's



# UP!

## Gangwon yangyang

### 서프 시티에서 파도 위에 선다는 것은!



#### 한국 서핑 핫스팟(Surfing Hotsot) 강원도 양양군

태양이 내리쬐는 해변,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전해진다. 넘실대는 파도가 서퍼들을 유혹한다. 형형색색의 보드를 탄 서퍼들은 물결을 따라 자유롭게 방향을 튼다. 서 있기도 힘든 보드 위에서 현란한 스텝을 밟는 그들, 전 세계 서퍼들이 파도를 즐긴다. 미국 하와이나 인도네시아 발리의 해변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강원도 양양에서도 펼쳐진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서핑 스팟(Surfing Spot)은 단연 강원도 양양군이다. 매년 50만 명의 서퍼들이 양양군을 찾는다. 좋은 파도를 만난 순간 "Surf's up!"을 외치며 바다로 달려가자. 푸른 바다에서 감성 서퍼를 꿈꾼 그대들에게 양양을 권한다.



 천혜의 자연조건 양양,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수천 톤의 파도가 하얀 포말을 그리며 쏟아진다. 딥고 버틸 땅도 없이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몸을 지탱해주는 건 출렁이며 기우뚱거리는 보드 뿐, 집채만 한 파도에 열광하고 거칠어진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든다.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파도를 탈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파도가 와도 그 순간 준비돼 있지 않으면 최적의 파도를 탈 수 없다. 보드에 앉아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파도, 거칠고 잔잔한 파도, 다른 서퍼에게 보낸 파도, 쉼 없이 혹은 천천히 밀려오는 파도를 만난다. 서핑은 한 번의 기회를 잡으려고 쉼 없이 기다리는 우리네 삶과 닮은꼴이다. 외국 휴양지나 영화에서 많이 본 서핑, 한국에서 활성화 된 건 1990년대 후반이었다. 강원도는 2019년 8월 22일, 양양군을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서핑 중심지로 떠오르는 양양을 서핑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내 서핑 인구는 2019년 기준 45만 명이다. 서핑 관련 업체도 250여 개로 전국 해상 레저 업체 중 50%를 차지한다. 양양군의 해변들이 서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천혜의 자연조건 때문이다. 이들 해변은 수심이 얇고 평평하며 파도가 적당해 서핑 입문자뿐 아니라 중·상급자 모두 서핑을 즐길 수 있다. 또 양양 지역에는 60여 곳의 서핑숍이 몰려있는 데다 다양한 서핑 강습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쉽게 서핑을 접할 수 있다. 서핑은 주로 설악, 동호, 기사문, 동산항, 죽도, 인구, 갯마을, 남애3리 등 8곳에서 이뤄진다.

희열만끽 서핑 100배 즐기기 TIP

- 1 이동할 땐 서핑보드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릴 것
  - ▶ 서핑보드가 망가질 수 있다.
- 2 한 명의 서퍼가 하나의 파도를 탈 것
  - ▶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3 물에 빠졌다가 올라올 땐 머리를 보호할 것
  - ▶ 보드에 부딪히면 찰과상, 심하면 뇌진탕이 올 수 있다.
- 4 이안류에 휩쓸려 먼 바다로 빨려나가면 사이드로 헤엄쳐 빠져나올 것
  - ▶ 직진으로 헤엄치면 이안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5 서핑보드에서 바다로 직접 뛰어내리지 말 것
  - ▶ 물이라고 방심하다 발목을 접지를 수 있다.



 낮고 넓은 해변, 잣고 높은 파도 죽도와 인구해변 

양양군의 서핑 스팟 중 서퍼들의 발길이 잦은 곳은 현남면의 죽도해변과 인구해변이다. 1세대 서퍼들은 서핑 포인트를 찾다가 죽도와 인구해변을 찾아낸다. 서핑의 매력에 빠져 도시생활을 접은 이들이 이곳에 터를 잡은 게 강원도 양양군이 서핑의 메카가 된 시초였다. 이곳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7%를 차지하던 초고령 마을이었지만 서핑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서핑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될 만큼 서핑 공동체 마을로 급부상했다. 죽도와 인구해변은 한 블록 정도로 가까워 두 해변의 매력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해변 근처에는 서핑스쿨, 숍, 맛집이 몰려 있어 서핑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다. 죽도와 인구해변은 2km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수심이 낮고 넓은 해변 때문에 특히 서핑 초보자들이 선호한다.

서핑은 고도의 평형감과 정확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스포츠다. 장비를 갖추고 바로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모래사장에서 충분한 연습한 끝에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안전장치가 있는 장소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초 강습을 수료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죽도와 인구해변에는 서핑숍과 카페, 식당 등을 생업으로 하는 서퍼들이 많다. 파도 좋은 날에는 가게 문을 닫고 바다로 나가 서핑을 즐긴다. 물질적 여유보다는 마음 가는 길을 따르는 그들이다. 각종 매체에 소개된 강원도의 핫 플레이스 '양리단길'도 죽도와 인구해변 사이에 위치해 있다. 양리단길은 양양 서핑 해변의 중심이자 양양을 대표할만한 유명 핫플레이스들이 모여 SNS에서 크게 주목받는 곳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될 만큼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2021년까지 서핑과 해양레저 기반 확충에 중점 

강원도는 급성장하는 서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양양지역 8개 해변에 21억5,1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핑과 해양레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해변에 8억 원을 들여 서핑 홍보 간판·조형물 설치를 비롯해 야외사위장과 해변 캠핑존, 보드거치대 등 서핑 편의시설과 함께 다목적 창고시설을 조성했고 특성화 사업 단계인 2020년에는 죽도해변 등을 중심으로 야외극장과 해변 산책로, 야외수영장, 노천카페, 서핑 전시장 등 부대시설을 만들어 명소화 할 예정이다. 3년 차인 2021년에는 서핑 박물관 개관, 서핑특화 상품 개발, 주변 경관 개선으로 서프 시티(Surf City)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핑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축제도 열린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매년 10월 중순, '양양 서핑 페스티벌'을 연다. 서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과 함께 서핑대회, 서핑체험, 서핑강습, K-POP 콘서트, 불꽃놀이 등이 진행되고 베틀시장과 야시장도 운영된다. 서핑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스포츠로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몸으로 부딪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해방감, 서핑의 매력에 한껏 빠져보자. 그 시작은 최상의 서핑 자격을 갖춘 강원도 양양에서.

## 부산, 마린 스포츠 허브로 가는 길



해양 스포츠는 늘 정체성이 문제였다. 놀이인지, 취미·운동·레저 산업인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종목과 범위까지 가세하면 속내는 더 복잡해진다. 해양 스포츠가 레포츠(레저&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해양 스포츠 개념을 가르는 일은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최근의 트렌드는 생활체육과 비즈니스 쪽으로 더 선회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을 도시 성장의 한 축으로 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독일 키엘과 경기도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선임연구위원

### 해양 스포츠, 비즈니스를 만나다

독일 북부 해안의 키엘은 인구 24만 명의 아담한 해양도시다. 중세 시대부터 한자동맹에 참여하는 등 전통적으로 해양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중심지였다. 특히 발트해와 북해 등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항로가 개설돼 있어 오래 전부터 독일의 해양 전진기지로 자리 잡았다. 이곳이 요트라는 가장 전형적인 해양 스포츠를 도시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은 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키엘은 매년 6월 말부터 1주일 동안 열리는 'Kiel Week'라는 대형 요트 축제를 글로벌 브랜드화해 성장 기반을 다졌다. 1814년에 첫 행사가 시작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화, 대형화 됐다. 연합군의 집중 폭격으로 초토화된 항만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 규모가 더 커지고 참여 선박과 관광객이 급증했다. 1000척이 넘는 요트와 범선 등이 참여하는 각종 레이스와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해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을 찾는다. 도시 인구보다 10배 넘게 찾아오는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경제적인 낙수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경기도는 해양 스포츠를 도시 성장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다. 2010년부터 화성시 전곡항을 중심으로 대형 보트 축제를 개최하면서 마니아층은 물론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 행사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오는 해양 스포츠 빅 이벤트로 도약했다. 행사가 성공하면서 요트 산업은 물론 마린아 건설까지 새로운 해양 스포츠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시흥시에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 파크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비가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매머드 사업이다. 실내에 서핑장을 조성해 내륙 지역의 서핑 성지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동안 서핑은 부산 송정, 제주도 해안 그리고 강원도 양양 해변에서 주로 이뤄졌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도 실내 인공 서핑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외국에서도 초대형 인공 서핑장을 만들어 스포츠 활성화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국내외 트렌드 변화를 지역 성장전략으로 재빨리 차용했다.



**민간부문이 부산 해양 스포츠 견인**

부산의 해양 스포츠를 이끄는 양대 축이 있다. 1)부산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와 2)한국 해양레저 네트워크다. 전자는 부산광역시와 민간단체들이 손을 잡고 추진하는 해양 스포츠 교육 및 체험 사업이다. 후자는 민간영역에서 해양 스포츠를 비즈니스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는 부산시에서 해마다 4~10월 사이에 개최하는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이 핵심 사업이다. 부산을 해양 레포츠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시작됐다. 부산광역시요트협회의 요트학교와 각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조정, 래프팅, 카누와 카약, 딩기 요트, 윈드서핑, 수상 스키, 카이트 보딩 등 대표적인 해양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이에 비해 해양레저 네트워크는 해양 스포츠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2012년 설립 당시 이 같은 취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 레저 스포츠 발전을 선도함을 물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해양 레포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부산 국제 보트 쇼와 2)대한민국 국제 해양 레저 위크(KIMA :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등이다. 특히 후자 사업은 매년 8월 말에 열리는 부산 바다 축제의 '부산 마린 스포츠 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이 같은 사업과는 별도로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해양 스포츠를 활성화 하는 사업도 다양하다.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카이트 보딩 대회다. 카이트 보딩은 최근 들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다이내믹한 해양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데, 우승자에게는 아시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프리 다이빙도 중독성이 강한 해양 액티비티의 하나로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섬 지역을 순회하는 다이빙 투어는 물론 해외 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모임을 통해 낚시 투어, 역사·문화 탐방, 별빛 투어 등 이색적인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어 앞으로 성장 가능성 큰 해양 스포츠 종목이다.

**해양 스포츠 성장전략 다시 짜야**

부산의 경우 해양 스포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바다를 갖고 있는 해양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3곳을 1시간 이내에 연결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초광역 스포츠 협력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 대학에 해양 스포츠 학과 등이 있어 전문 인력 배출과 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문제는 이 같은 천혜의 조건을 이어주고, 묶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만들면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해양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첫째, 해양 스포츠 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자. 부산의 경우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할 뿐 해양 스포츠 성장을 주도할 장기 비전이 없다.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은 물론 스포츠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해양 스포츠 발전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둘째, 민간 부문의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전국은 물론 부산에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 전문가와 단체,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스킨스쿠버 회원들이 중심이 돼 태종대 인근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는 모임도 있다. 해운대에서는 철을 가리지 않고, 아침 수영을 하는 클럽도 있다. 해양 스포츠 마니아를 네트워킹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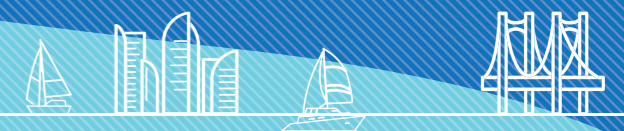
셋째, 정부의 관련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 등을 통해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에 해양교육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들어 있는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해양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독일의 키엘이나 경기도 사레와 같이 이제는 스포츠도 비즈니스를 먹고 자란다.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양 스포츠를 비즈니스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해양 스포츠가 부산의 힘이다.

“  
생활체육과 비즈니스,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  
”

*Marine Sports*



ISSUE FOCUS

# 국제 탁구계의 메가 이벤트를 기다리며

##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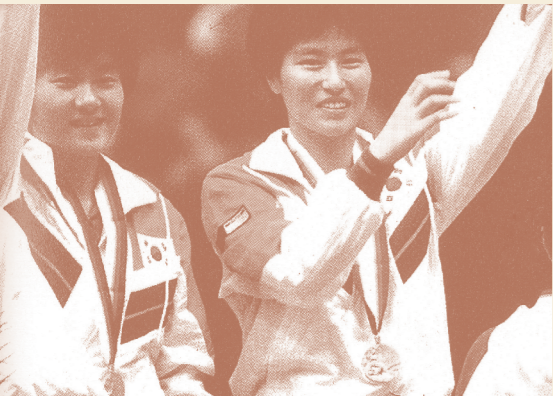


지난 3월 22일(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한국 탁구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이자 2020 도쿄올림픽대회의 전초전으로 전 세계 탁구인의 관심과 기대가 쏠렸다. 부산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탁구 영웅'으로 불렸던 유남규 감독과 '탁구 여왕'으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현정화 감독을 배출한 탁구 메카로 불렸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오매불망(寤寐不忘) 기다려온 선수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연습에 매진 중이다.

### 핑~퐁! 매력 만점 탁구의 열기로 핫한 도시, 부산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476개의 민간 탁구 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정기적으로 탁구를 즐기는 생활체육인도 1만 7,6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제탁구연맹(ITTF) 주최로 1926년부터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1957년부터 2년마다 개최했다. 홀수 해에는 남·녀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등 다섯 개 종목을 치르는 대회가 열린다. 남·녀단체전은 '세계단체탁구선수권대회'라는 이름으로 2000년부터 따로 치러지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 5월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총회에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부산시가 단독 후보로 나섰는데 회원국 만장일치로 유치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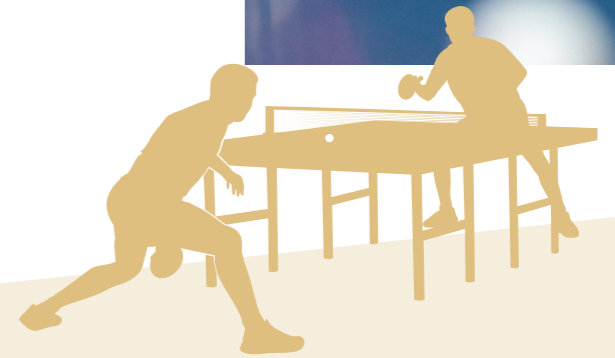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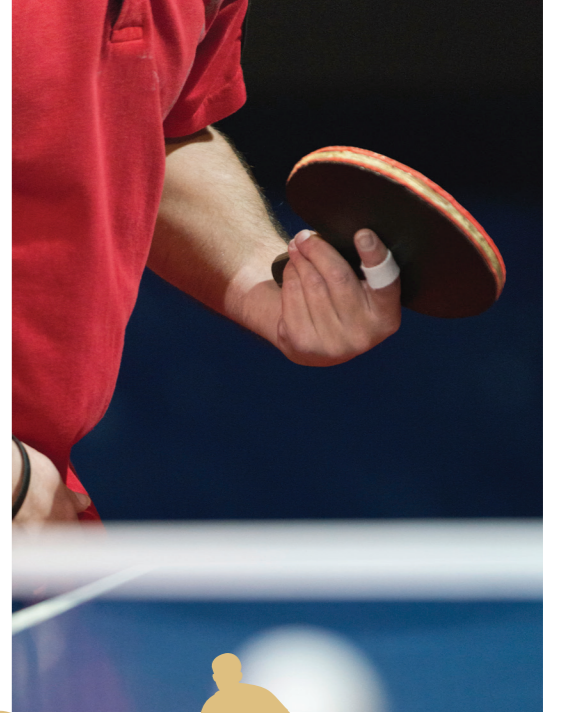
한국은 세계 최강 중국을 위협하는 탁구 강국임에도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던 터라 이번 유치로 탁구인들의 숙원을 푼 셈이다. 부산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지역과 탁구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이미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도시로 각인시킬 좋은 기회였다. 단체전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79개국, 선수 537명을 비롯해 각국 탁구협회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 성공적인 대회 개최 위해 다각적인 준비에 박차

대회 엠블럼은 태극문양 색을 두 개의 탁구 라켓 형상 안에 부산을 상징하는 광안대교를 새겨 넣었다. 라켓의 테두리는 무한대를 뜻하는 '∞' 모양으로 탁구를 통한 무한한 인류 평화 의지를 담았다. 마스코트는 부산의 시조인 갈매기를 형상화했다. 갈매기의 하얀 몸과 날개는 백의민족을 상징하고 뱃길 따라 끈기 있게 날아다니는 모습은 부산 시민의 강인한 정신력을 의미한다. 마스코트 이름은 '아나(ANNA, 여자)'와 '온나(ONNA, 남자)'로 결정했다. 부산 사투리인 '여기 있다'와 '어서 오나라'란 의미를 담았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역 길거리 탁구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리셉션' '꿈나무 탁구 대잔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애초 지난 3월 22일(일)부터 29일(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펼쳐질 예정이었다. 코로나19의 지역 전파가 현실화되면서 국제탁구연맹에서 공식적으로 대회 연기를 권고했고



조직위원회가 이를 수용했다. 국제탁구연맹은 코로나19로 하반기까지 모든 국제대회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야심차게 준비하던 탁구계 관계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진땀을 흘리는 중이다. 국제탁구연맹은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6월 21일(일)에서 28일(일)로 한 차례 개막을 미뤘다.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선수단과 임원, 탁구팬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회 연기가 불가피하지만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ITTF의 확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는 대회 개최 시점을 9월 말 정도로 보고 있다. 대회가 연말에 치러질 경우 벡스코 대관이 더 힘들어지고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벡스코도 대관 일정이 빡빡해 조율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 탁구 100년사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하던 탁구계 관계자들은 잦은 일정 변경에 힘이 빠진 상황, 50여 명의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대회를 치르지도 못하고 짐을 싸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인천선수촌에서 퇴촌해 각자 소속팀에 돌아간 상황이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톱랭커가 참가하는 대회다. 국내 선수들은 최고 수준의 경기를 직접 경험, 관람하면서 경기력 향상을 꾀할 수 있고 100만 탁구 동호인들 역시 세계 톱랭커들의 경기를 관전하며 탁구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돼 빠른 시일 내에 부산에서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

### 마스코트 MASCOT

#### 아나 ANNA

탁구에서 공을 건네며 '자! 받아라!' 또는 '여기 있다'라는 뜻의 부산 사투리



#### 온나 ONNA

상대방의 공을 받아치며 '어서 오나라, 받아쳐줄게'라는 뜻의 부산 사투리



ISSUE  
FOCUS



## 부산광역시 체육회 창립 기념식 개최

부산 시민의 삶 속에  
살아 있는  
부산체육이 되도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2월 27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6층 접견실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창립기념일(2월 29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부산시체육회 직원들만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기념식은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더욱 발전하는 부산체육을 만들어가자는 다짐을 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발굴해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는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24년 만에 5번째로 제105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시장배 슈퍼컵 종목을 7개 종목에서 8개 종목으로 확대해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부산시민체육대회 등 스포츠 행사 개최로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체육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체육 현장에서 한결같이 애써주고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앞으로 부산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SSUE  
FOCUS



## 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우수 체육 인재  
양성의 메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지난 2월 7일(금) 체육 인재 양성의 산실인 부산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부산체육고등학교 학생과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인화 회장은 체육고등학교장으로부터 전국체육대회 준비사항과 예상전력을 청취하고 유도장에서 훈련 중인 학생과 지도자들의 격려를 시작으로 맹훈련 중인 복싱, 태권도, 사격, 럭비, 역도, 레슬링, 펜싱 등 주요 우수 종목의 훈련장을 찾아 학생들과 지도자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장인화 회장은 "우수 체육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 잡은 부산체육고등학교의 김창민 교장 선생님과 감독 및 지도자, 학생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무엇보다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체육고등학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전체 득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세팍타크로팀이 전국체육대회 5연패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전국 유일 부산탁구체육관 개관식

부산광역시시는 지난 2월 11일(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국립해양박물관 맞은편 옛 구민체육공원에 건립된 '부산탁구체육관' 개관식을 열었다. 안전기원 지신밟기 등 풍물놀이 공연과 공식행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개관식에는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과 부산탁구협회 양재생 회장 등 탁구협회 관계자,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등 체육계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생활 탁구 활성화에 큰 이바지, 부산 탁구의 명성 되찾기

부산탁구체육관은 탁구 전문 체육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시설이다. 2018년 12월에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했으며 연면적 1662㎡, 지상 2층 규모로 공사비만 49억 6천만 원이 투입됐다. 1층에는 일반 이용객을 위해 탁구대 10대가 설치됐고 2층에는 탁구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15대의 탁구대와 전용 바닥 매트, 수납형 의자, 벽면 충돌 방지시설 등이 설치됐다. 엘리트 선수들의 전용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도 탁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생활 탁구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탁구 전문체육관 건립은 1980년대 이후로 침체가 된 부산 탁구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탁구 꿈나무와 엘리트 선수들이 이곳에서 큰 꿈을 키워 탁구 부흥을 이끌어갈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

부산광역시시는 이날 개관식 식후행사에서 '2020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식전행사에서는 오 시장과 이호성 KEB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 총괄부행장이 참석해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메인 스폰서 협약식을 했다. 식후행사 때는 서울올림픽대회 탁구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에서 각각 동메달, 금메달을 땀던 안재형 전 여자 대표팀 감독과 양영자 대한체육회 꿈나무 탁구 감독이 짝을 이뤄 꿈나무조와 '레전드 매치'를 선보였다. 안 전 감독과 양 감독은 행사장에서 시민과 즉석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올 3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6월로 연기된 상황, 하지만 국제탁구연맹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6월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연말로 미루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2020 부산광역시 실업팀 선수단 시무식 및 워크숍

### 부산실업팀 선수단 전문성과 역량 강화의 장

부산광역시체육회 지난 1월 16일(목)부터 17일(금) 양일간 체육회·시청 실업팀 및 업무담당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2020 부산광역시 실업팀 선수단 시무식 및 워크숍'을 가졌다. 부산광역시 실업팀 선수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워크숍은 선수들이 소속감을 고취하고 서로 간의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첫째 날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스포츠안전재단의 '안전교육', BNK 부산은행의 '퇴직연금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선수인권 및 도핑방지 교육' 등 특강이 이루어졌다. 또 부산광역시 실업팀 선수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경주 토함산 산행을 가기도 했다. 이번엔 개최된 워크숍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실업팀 선수단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매우 유익한 교육으로 평가를 받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훈련에 매진해온 지도자·선수들의 재충전과 더불어 변화하는 체육 환경을 이해하고 앞으로 부산체육을 열어가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시 보는 부산체육 50년

### 사직벌에 올려 퍼진

# 의 필승 코리아



## 01

### 2002년 부산의 대도약

2002년 부산은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개항 이래 최대의 국제적인 종합 스포츠대회를 앞두고 도시 전체가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와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적인 종합 스포츠대회를 통해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제1의 향도를 넘어 세계의 문화와 경제를 잇는 동북아시아의 관문도시, 국제적인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의 입장에서 이들 국제대회의 연이은 개최가 갖는 의미는 각별했다. 1960~70년대 국가 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기에 넘쳤던 부산의 산업과 경제는 2000년대 초 6~7% 정도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가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경제와 산업에 완전한 회복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종래에는 IMF 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부산은 오랜 동면(冬眠)에서 깨어나 다시금 힘찬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도시 전체에 넘실거리는 변화의 기운 속에서 부산은 대망의 2002년을 맞아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아시아경기대회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두 개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준비에 온 역량을 집중했다. 부산은 이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부상했으며, 부산시는 2002년을 '부산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세계를 맞을 준비에 부심했다. 그 첫 단추는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였다.

## 02

### 국제도시 부산과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는 대회 자체가 하나의 도전으로 여겨질 만큼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뤄진 대회였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 이후 제23회 프랑스 대회까지 FIFA 월드컵축구대회는 70여 년 동안 유럽과 미주를 왕복하며 개최됐다.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치르게 된 월드컵대회이자, 역사상 최초의 공동 개최 대회였다. 올림픽대회에 버금가는 전 지구촌 최고의 스포츠 축제이자 범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시청·시체육회, 일반 시민을 가릴 것 없이 일제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02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부산 운영본부에서는 대회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2001년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희망자를 모집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한 도시 전체의 호응에도 심혈을 기울여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 부산경기일정 및 대진표 등 홍보물 9종 36만 매를 제작해 시내의 호텔, 관광안내소,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한편 각종 행사에 배포했다. 개막이 임박한 2005년 5월 9일에는 완벽한 월드컵 개최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각 분야의 준비사항에 대한 총 점검을 실시했다.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부산의 월드컵축구대회 열기는 한층 더 고조됐으며, 대회 개막을 맞아 21세기 최초의 월드컵축구대회 공동 개최국인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20개 개최 도시에 전 세계 축구팬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 03

### 부산, 월드컵축구대회 첫 승의 감격을 끌어안다

월드컵축구대회 본선 1승과 2라운드 토너먼트(16강) 진출은 축구계는 물론 온 국민의 열망이었고, 이는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를 기점으로 더욱 뜨겁게 분출됐다. 대표팀 또한 이 같은 거국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전 대회인 1998년 프랑스월드컵축구대회에서 네덜란드를 4강으로 이끈 세계적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는 등 월드컵 본선 최초 1승과 16강 진출에 사활을 걸고 대회에 임했다. 월드컵축구대회 본선 첫 승의 꿈이 이뤄지고, 16강 진출의 염원이 가시화되자 한반도 전역은 온통 환희와 열광으로 들끓었다. 역사적인 월드컵 첫 승이 이뤄진 도시, 부산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부산역 앞 광장, 해운대해수욕장, 부산대학교 등 부산 지역 곳곳에 설치된 대형스크린 앞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붉은 티셔츠 차림의 응원단과 어울려 화면에 비치는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거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 04

### 세계 4강을 넘어선 부산의 승리

월드컵 본선 무대 첫 승의 봉인을 푼 한국 국가대표축구팀은 폴란드전 승리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미국전을 1대0 무승부로 돌파한 한국은 FIFA랭킹 세계 4위의 거함 포르투갈마저도 1대0으로 침몰시키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이로써 한국대표팀은 1라운드 조별리그를 2승 1무로 마무리, D조 1위로 2라운드에 진출함으로써 마침내 온 국민의 숙원이었던 월드컵축구대회 16강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한국의 질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8강과 4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2대1(연장전 골든골), 5대3(승부차기)으로 격침함으로써 월드컵축구대회 4강 진출의 신화를 완성했다. 대회 기간 내내 보여준 부산의 높은 잠재력과 에너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선 확신은 부산이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해 거둔 가장 의미 있는 수확이었다. 올림픽대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이미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대성공을 예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 팬데믹 선언, 코로나19 이것이 궁금하다!



지난 1월 20일(월)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인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지난 3월 11일(수)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지난 4월 4일(토)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12만 명에 사망자는 5만8955명을 훌쩍 넘는 상황,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을 보낼 수만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은 철저한 예방이다. 나뿐 아니라 가족, 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자!

##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코로나19



코로나19는 우한에서 발병한 유행성 질환으로 우한 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줄여서 '코로나19'로 불린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았지만 2020년 1월 7일 사스(SARS)나 메르스(MERS)와 같이 신종 바이러스임을 알아냈다.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부르게 되었고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지난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다. 지난 2월 11일 'Corona Virus Disease 2019'를 줄인 'COVID-19'로 명명했고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한글 명칭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정하고 발표했다.

##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환 특성 고려한 예방법



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된다.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해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엔 폐포가 손상돼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른다. 잠복기는 14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필수다.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외출 전과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호흡을 통한 전염을 예방해야 한다. 가급적 사람이 밀집한 곳은 피하고 귀가 후에는 외출할 때 입은 옷을 바로 세탁하는 게 좋다. 또 감염 지역을 여행하지 않았더라도 유사 증상이 발생한다면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전화해서 안내를 받는다.

##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한 때



우리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개개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또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신부나 65세 이상, 당뇨병이나 심부전증, 만성호흡기 질환자, 암환자 등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더욱 철저하게 손을 씻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국민 행동 수칙을 기억, 실천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NOVEL CORONAVIRUS  
2019-nCoV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톡톡 TALK TALK



### Q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이 밝혀졌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SARS-CoV-2)가 추가되어 총 7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고,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Q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과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나요?

**A** 질병관리본부와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초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됐습니다.

###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 간에 전염되나요?

**A** 최근 중국 내 가족 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Q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 완료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 Q 확진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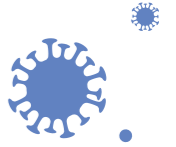
**A** 아직 완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실시 중입니다.

### Q 의심환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의심환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진단검사 및 증상 치료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 Q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접촉에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 감기 VS 코로나19 VS 독감



### 감기

- ☑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래, 기침, 인후염, 두통, 미열 등
- ☑ 잠복기 1~3일
- ☑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 ☑ 크게 일주일 넘지 않는 증상

#### 원인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2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



### 코로나19

- ☑ 발열, 근육통, 호흡곤란, 마른기침, 심한기침, 숨이 차는 증상 등
- ☑ 잠복기 2~14일(추정)
- ☑ 1주일간 천천히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폐렴으로 발전
- ☑ 드물게 무증상 감염자도 발생

#### 원인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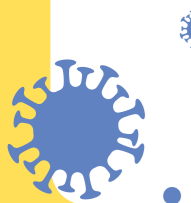


### 독감

- ☑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등
- ☑ 갑자기 크게 오르는 고열
- ☑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열
- ☑ 극심한 피로감
- ☑ 전신 증상 동반

#### 원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 B형, C형)



# Health

# Exercise

봄맞이 활력 충전!

## 집에서도 간단하게 즐기는 맨손 운동

국민건강체조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출을 꺼리게 되는 요즘,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몸은 점점 찌뿌둥해지고 기분까지 처지는 느낌이 들곤 한다. 하지만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올해도 봄은 우리를 찾아왔다. 따뜻해진 햇살 아래로 이미 꽃들이 만발하고 푸른 잎들도 생기를 띠고 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실내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 겨우내 뭉쳤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고 이내 처졌던 기분까지 좋아질 것이다.



### 1 준비 운동 : 걷고 가볍게 뛰기

- 1 가볍고 경쾌하게 왼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
- 2 다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
- 3 정면을 보고 왼발을 가볍게 구부려서 발가락 앞쪽을 짚듯이 오른발과 함께 두 번 가볍게 뛰고 다시 발을 바꾸어 두 번 뛴다.



### 2 허리 운동 : 몸통 돌리기

- 1 두 다리를 벌리고 선 자세로 양팔을 머리 위에서 잡고 몸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돌려 한 바퀴 반을 돌려 왼발 앞까지 온다.
- 2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크게 돌려 오른발 앞까지 온다.



### 3 어깨 운동 : 팔굽치기

- 1 왼쪽으로 몸을 틀고 앞 왼발은 구부리며 뒷 오른다리는 편다. 동시에 왼손은 가슴높이에서 주먹을 쥐고 오른 손바닥은 펴서 왼손의 주먹을 밀듯이 옆구리를 비틀면서 뒤를 본다.
- 2 양 팔굽을 옆구리에 붙이고 위로 올렸다가 양팔을 펴서 위로 크게 들고 양옆으로 내려 뒤에서 각지를 끼고 어깨를 뒤로 한 것 것처럼 준다.
- 3 오른쪽으로 1, 2의 동작을 반복한다.



### 4 스트레스 운동 : 몸 비틀며 뛰기

- 1 왼쪽으로 몸을 트위스트 하면서 가볍게 4번 뛰며 이동한다. 두 발은 모아 앞, 뒤로 네 번 뛴다. 옆으로 이동할 때 양팔을 자연스럽게 비틀며 앞뒤로 이동할 때 양팔을 수평으로 편 상태로 왼팔부터 손끝이 귀 옆으로 가도록 구부리며 4번 반복한다.
- 2 같은 동작을 오른쪽으로 반복한다.



### 5 옆구리 운동 : 몸 들어 손날치기

- 1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고 팔은 양옆으로 벌렸다가 몸통 앞에서 교차시킨다. 상체를 일으켜 왼쪽을 향하고 손은 오른손부터 아래, 중간, 위로 뻗어준다. 다리는 앞, 뒤, 앞으로 중심을 이동 하면서 가볍게 움직인다.
- 2 같은 동작을 오른쪽으로 반복한다.



### 6 안정 운동 : 휘둘리기

- 1 팔을 머리 위로 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돌린다. 반대 방향으로 반복한다.
- 2 같은 동작을 가슴 앞에서 반복한다. 이때 양발은 선 자세로 두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한다.



### 7 다리 운동 : 발차기

- 1 두 팔을 가슴 앞에 두고 가볍게 준비 자세를 취한다. 왼발은 앞에 내딛고 앞뒤로 가볍게 4번 뛰는데 4번째에 왼발을 뒤로 빼고 뒤에 있는 왼발로 앞으로 친다. 이때 양팔과 양발을 벌렸다가 모아준다. 같은 동작을 오른쪽으로 반복한다.
- 2 1과 같은 방법으로 4번 뛰며 발 위치는 변동 없이 옆차기로 차 준다. 이때 양팔과 양발을 벌렸다가 모아준다. 같은 동작을 오른쪽으로 반복한다.



강철보다 강한 정신과 체력

# 멈추지 않는 철인(鐵人)들의 도전 철인3종

인간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철인3종 경기 중 '아이언맨(Ironman) 코스'에 참여한 선수들은 3.9km의 물살을 가르고 180.2km 동안 자전거 페달을 밟고 42.195km를 달려서 강철과 같은 철인(鐵人)으로 거듭난다. 철인3종은 다른 스포츠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이목을 끌고 있다. 한계를 이겨내며 더 강해지는 자신을 온몸으로 느끼는 짜릿한 쾌감이 그 어떤 스포츠보다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 철인의 끈기와 정신력으로 이어지는 길

철인3종은 수영으로 출발해서 지정된 제1 바꿈터(Transition Area)에서 사이클로 전환하고 정해진 코스를 마친 뒤 다시 제2 바꿈터에서 마라톤으로 전환해 결승선에 도착하는 대로 순위를 가린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종목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철인3종 경기는 참가 선수에 따라 엘리트부, U23, 주니어부, 동호인부, 장애인부 등으로 구분되며 수영, 사이클, 달리기 하는 거리에 따라 스프린트(Sprint), 표준인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철인(Ironman) 코스 등으로 나뉜다. '스프린트'는 수영 750m 이내, 사이클 20km 이내, 달리기 5km 이내이며, 올림픽 코스로도 사용되는 '인터내셔널(표준거리)'은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코스를 일컫는다.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철인 코스'는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달리기 42.195km로 이 종목을 완주한 사람은 '철인(Ironman)'으로 칭한다.



## 철인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triathlon)!

철인3종 경기의 원어인 트라이애슬론(triathlon)은 어원상 라틴어로 '3개'를 뜻하는 '트라이(tri-)'와 '경기'를 뜻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로 흔히 장거리의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하는 경기를 말한다. 이러한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극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초지구력 운동에 속하며 극한의 체력을 필요로 해 흔히 철인3종 경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트라이애슬론은 1920년대에 마르세유의 수영클럽에서 사이클 7km에 이어 5km를 달린 뒤 수영 200m로 끝마치는 3종 경주가 이루어지는 등 프랑스에서 태동했으나, 1970년대 하와이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극한의 스포츠로 발전했다. 미국 해군 중령 존 콜린의 제안으로 와이키키 바다수영과 오아후섬 일주 사이클대회, 호놀룰루 마라톤대회를 묶어 수영 3.9km, 사이클 180.2km와 마라톤 42.195km를 하루에 완주하는 종목을 실시한 것이다. 이 종목을 완주한 사람에게 '아이언맨(Ironman)'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는데 당시 여성 참가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man)라고 칭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어진 하와이 철인3종 경기는 현재 가장 유명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트라이애슬론은 젊은이들의 모험과 도전 정신을 담고 있는 스포츠로서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해 프랑스 아비뇽에서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nternational Triathlon Union; ITU)이 출범했다. 아비뇽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수영 1500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를 정식 코스로 삼았으며 이때 정립된 경기 규정이 경기 규정이 정립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림픽대회에서도 빛나는 철인의 땀방울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 1994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철인3종 경기를 올림픽 정식종목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개최한 제 27회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철인3종경기가 이루어졌다. 특히 개막경기로 진행된 철인3종 여자부 경기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철인3종경기 올림픽 코스는 인터내셔널 코스(표준거리)로 하며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등 전체 51.5km 거리를 경쟁한다. 아이언맨 코스에서는 자전거 경기 중 선수를 보조하는 것이 허가돼 있지만 올림픽 경기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02 Cycle



오늘도 계속되는 코리아 아이언맨의 도전

철인3종은 1987년 한국트라이애슬론연맹이 창설되고 같은 해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국내 최초의 철인3종경기 대회가 개최되며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트라이애슬론연맹에서는 보급과 선수 육성에 나서고 국제교류도 넓혀나갔고 그 결과 1994년 제주에서, 1999년 속초에서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2000년에는 제주도에서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주최하며 제주를 트라이애슬론의 메카로 삼았다.

이후 통영에서도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11월 제4회 아시아연맹 회장에 유경선 회장이 선임되면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 트라이애슬론 선도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철인들의 세계대회 진출도 이어졌다. 2006년도 도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철인3종 올림픽 코스가 채택되면서 신진섭 선수가 남자부 6위를 차지했다.

또한 2008년 캐나다 밴쿠버 세계선수권대회 때는 허민호 선수가 주니어 남자부에서 7위를 차지하고 같은 해 비치 아시안게임에서 장윤정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향후 올림픽 메달 종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개최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부에서도 장윤정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철인3종경기 역사에 획을 그었다.

올림픽 경기의 경우 종목 전환에 드는 시간이 짧아 데 우수한 선수의 경우는 8~10초 정도에 종목 전환을 완료한다. 기록 단축을 위해서는 경기종목의 전환을 신속하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기 준비나 예행연습 단계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현재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세 경기 모두에서 입을 수 있는 트라이애슬론 경기복을 착용하며 수온이 20℃ 이하일 때 보온복 착용이 허용되기도 한다. 이때 보온복의 두께는 5mm 이하이다. 수영은 주로 바다나 강, 호수에서 진행되며 수영모는 선수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주최 측에서 지급한 것을 착용하게 된다. 사이클은 도로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 반드시 공인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사이클의 길이는 185cm 이내, 폭은 50cm 이내로 제한된다. 마라톤은 일반 도로에서 진행되며 발목에 부착된 GPS 칩을 통해 정확한 시간과 경로를 체크해 순위를 측정하고 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혼성릴레이 종목이 정식 채택되었고 김지환, 허민호, 김규리, 정혜림 선수가 은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정혜림 선수가 2016년 코즈멜 세계선수권대회 주니어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 혼성릴레이 종목에서는 김지환, 허민호, 박예진, 장윤정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리나라 철인들의 메달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른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철인3종경기 역사는 아직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철인3종경기 동호인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대회 창설 및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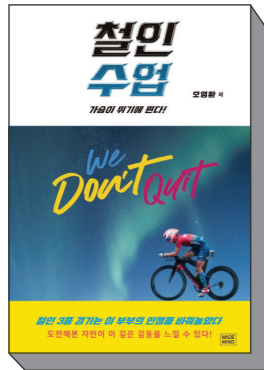
Marathon 03



FINISH



# BOOK



**철인수업** 지음\_오영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강철 체력, 아이언맨 오영환의 눈부신 땀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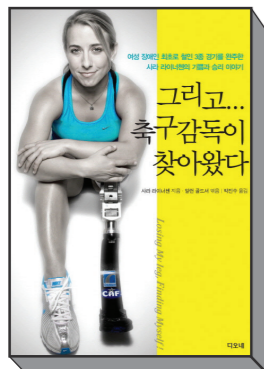
몸도 정신도 무쇠처럼 강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언맨 오영환이 들려주는 이야기 '철인수업'.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달리기 42.195km로 '아이언맨 코스'라고 불리는 최장거리 코스를 소화하는 철인은 그저 영화 포레스트 검프처럼 달리는 것이 좋았다고 말한다. 국내 아이언맨 코스 최단 기록 보유, 월드 챔피언십 아시아 기록 보유, 한국인 최초 국제 아이언맨 인증 코칭 자격증 취득, 국내 철인3종 시합 최다 1위라는 화려한 왕관을 쓴 오영환은 시합을 완주하고 느끼는 짜릿한 쾌감을 잊을 수 없기에 오늘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경기를 늘 지켜보는 한 사람,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이라도, 나이가 들었더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 아이언맨을 위해 아이언맨에 의해 정직하게 흘리는 땀의 소중함을 계속 느끼며 살고 싶다는 오영환의 말은 철인을 넘어 도전하는 모두에게 큰 울림을 선사한다.



**마녀체력** 지음\_이영미

**저질체력 에디터에서 트라이애슬론 철인으로, 인생 대반전 체력 갱생 프로젝트**

저질체력, 올빼미족, 게으름뱅이에서 벗어나 트라이애슬론 경기 15회에 마라톤 레이스 10회는 물론 미시령을 자전거로 오르내리기까지, 이영미가 전하는 세상 모든 직장인을 위한 반전 있는 운동기 '마녀체력'.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영석, 손미나, 이적 등 다양한 사람들과 몇 백 권의 책을 만들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지만 이영미의 곁에는 고혈압과 스트레스, 저질체력이 남았다. 그러다 40살부터 집 앞 수영장을 들락거리고 달밤에 공터를 달리고, 바구니 자전거로 슈퍼를 다니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두 발로 땅을 박차고 달리면서 지금 여기, 오롯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점차 운동에 빠져들었다. 이영미는 트라이애슬리트가 되고 신체만 건강해진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태도 역시 바뀌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인간으로 살기를 희망하며 40보다 멋진 50, 50보다 건강한 60을 위해 운동한다고, 도전에는 끝이 없고 아직 우리도 늦지 않았다고 말이다.



**그리고 축구감독이 찾아왔다** 지음\_사라 라이너첸

**여성 장애인 최초로 철인3종 경기를 완주한 진정한 철인, 사라 라이너첸**

튼튼한 두 다리가 아닌 가느다란 다리 하나와 익숙하지 않은 부목만으로 철인3종경기 풀코스 완주에 성공한 최초의 여성 장애인 사라 라이너첸의 기쁨과 승리의 이야기 '그리고 축구감독이 찾아왔다'. 사라는 유소년 축구팀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딛고 축구장이나 소프트볼 경기장, 수영장 등에서 장애인도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혔다. 11살에 달리를 시작해 2년 만에 처음 참가한 국제육상대회에서 대퇴 절단 여성 장애인 100미터 부문에서 신기록을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2005년 하와이 세계철인3종경기대회에서 여성 절단 장애인 최초로 풀코스를 완주하며 스포츠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다. 한계가 없는 인생, 도전하는 삶을 직접 증명해낸 것이다. 이후에도 마라톤 대회 참가는 물론 미국 장애인 육상 대표로 바르셀로나 패럴림픽대회에 참가, 2006년 (USA Triathlon : 미국 철인3종경기연맹) 올해의 여성 지체 장애인 선수 수상 등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MOVIE



**100미터** 감독\_마르셀 바레나 출연\_다니 로비라, 카라 엘레할데, 알렉산드라 지메네즈

**다발성 경화증을 딛고 일어난 아이언맨 라몬 아로요의 감동 실화**

성공한 광고회사 직원인 라몬은 회사와 집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지만 전직 사이클 선수인 장인어른 마늘로가 자신의 집으로 이사 온 이후 갈등을 겪는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라몬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생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병마와 싸워 이겨낼지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다 자신의 가족과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완치를 응원하기 위해 가장 힘든 철인3종경기인 아이언맨에 도전하기로 결정하는데... 영화 100미터는 실존 인물 라몬 아로요의 이야기를 감동적이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냈다. 실제로 라몬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음에도 아이언맨 대회를 비롯해 마라톤 4번, 올림픽 철인3종 8번, 하프 아이언맨 5번, 하프 마라톤 16번 등을 완주했다. 영화에서는 우승이 아닌 완주를 위한 라몬의 치열한 도전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땀큐, 대디** 감독\_닐스 타베니어 출연\_자크 겐블린, 파비앙 예로, 알렉산드라 라미, 소피 드 뤼어스트

**세계 최강의 철인들 속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도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몸은 굳었지만 언제나 도전을 꿈꾸는 소년 줄리안과 아들을 지지하며 함께하는 아버지 폴의 아름다운 도전을 그려낸 '땀큐, 대디'. 또래 아이들처럼 달리고 싶었던 줄리안은 아버지에게 철인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 역시 그들의 무모한 도전에 반기를 들었다. 철인3종경기위원회마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참가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줄리안은 직접 위원회에 찾아가 일반인 철인3종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팀 (team)호이트' 부자(父子)는 전신마비 장애인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38년간 철인3종경기 6회, 단축 철인3종경기 206회를 완주하고 달리기와 자전거로 미 대륙 6,000km를 횡단하며 많은 이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물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들을 태운 고무보트를 허리에 묶어 3.8km를 수영하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km를 달리고,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며 42km를 달리는 부자의 뜨거운 도전이 영화 속에서 펼쳐진다.



**말아톤** 감독\_정윤철 출연\_김미숙, 조승우

**세상을 올리는 5살 지능의 20살 청년**

'자폐증' 진단을 받은 초원, 엄마 경숙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한다. 경숙은 초원이 마라톤 1위를 달성'으로 정하고 아들 훈련에만 매달린다. 어느 날 세계대회에서 1위를 한 전력이 있는 전직 유명 마라톤러 정욱이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초원의 학교로 오게 되고 경숙은 부탁을 거둬해 정욱에게 아들의 코치 역할을 떠맡긴다.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초원을 성가시게만 생각했던 정욱, 하지만 초원과 함께 보낼수록 그는 아이같이 순수하고 솔직한 초원에게 조금씩 동화되고 초원도 정욱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배형진 씨는 2001년 춘천 마라톤대회에서 서브쓰리(3시간 이내 완주)를 기록, 2002년 철인3종경기(올림픽코스)에 참가해 약 15시간의 기록으로 완주,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기록했다.





# 구·군체육회

**중구체육회**  
제1차 중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중구체육회는 지난 1월 30일(목) 코모도호텔 희락정 2층에서 '제1차 중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변동사항을 보고하고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회장 당선 보고, 중구체육회 규약 개정(안)과 임원의 선임권한 위임(안)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서구체육회**  
서구체육회장 당선증 전달식 개최



서구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수) 미가도에서 '서구체육회장 당선증 전달식'을 개최했다. 총 5회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前)서구체육회 김용구 수석부회장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김용구 당선인은 축하 속에 서구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진구체육회**  
2020년도 생활체육교실 접수 모집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월 6일(월) 초연근린공원체육관에서 2020년도 생활체육교실 접수를 모집했다. 배드민턴1-2, 필라테스, 요가1-2, 바디펌프, 에어로빅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다. 참여한 구민들은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한 운동을 통해 새로운 취미생활을 얻었다고 말했다.

**동래구체육회**  
동래구체육회·동래스포츠클럽 정기이사회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2월 17일(월) 유명진의 육미정담에서 동래구체육회장을 비롯해 이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동래구체육회·동래스포츠클럽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민선회장 당선 취임, 생활체육대회 개최계획 보고, 체육 꿈나무 장학생 선발보고, 이사회 취임과 사임 현황 보고, 사무국장 임명동의, 2019년도 사업실적·결산과 2020년도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회 후 만찬을 즐기며 동래구 체육 발전과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동구체육회**  
동구체육회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2월 20일(목) 동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 임원 52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차회의 요약보고, 2019 동구체육인의 밤 개최보고, 2019 어린이체육교실개회보고, 동구체육회 임원 및 회원단체 보고,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수탁사업 수익금 현황보고, 감사 보고를 진행했다. 2020년도의 동구체육회 계획과 포부를 알리며 다 같이 올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영도체육회**  
영도구체육회 코로나-19 방역 격려 기부금 전달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3월 9일(월)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는 긴급 방역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이강 체육회장이 영도구청을 방문해 격려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남구체육회**  
2020년도 남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2월 18일(화) 각 종목단체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남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가입·탈퇴 규정 개정과 감사를 보고했고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남구체육회 규약 개정(안), 남구체육회 임원 선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회의가 끝난 후 식사자리를 가지며 남구체육회 발전에 관한 논의를 했다.

**북구체육회**  
북구체육회장 취임식 개최



북구체육회는 지난 1월 30일(목)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북구체육회 오태원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북구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의 축하를 위해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은 위촉장을 전수했다. 오태원 회장은 축사로 북구체육회의 회장으로 자리해 첫 민선 회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북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본회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구·군체육회

**해운대구체육회**  
제24회 해운대구체육회장기 유소년클럽 축구 스토브리그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1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3일간 장신인조잔디구장과 해운대초등학교에서 '제24회 해운대구체육회장기 유소년클럽 축구 스토브리그'가 개최됐다. 17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16개 클럽 선수들이 모여 경기에 참가했고 축구 꿈나무육성과 유소년 축구를 통한 지역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대회 결과로는 우승 - 양주유소년축구클럽, 준우승 - 해운대 FC, 공동3위 - 청주FCK, 백스FC, 개인 시상은 최다득점상 - 양주유소년축구클럽 김 훈, 최우수선수상 - 양주유소년축구클럽 박성후, 우수선수상 - 해운대FC 민성욱 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금정구체육회**  
제8회 금호타이어 및 야구협회장배 대회 개최



금정구야구협회는 지난 1월 12일(일) 금정구민운동장에서 '제8회 금호타이어 및 야구협회장배 대회 결승전'을 개최했다. 맑은 날씨 속에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동호인들은 그동안 경기를 하며 결승까지 올라와 마지막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 멋진 기량을 펼쳤다. 대회 결과로 우승 - 케스트를, 준우승 - 빅브로스가 차지했다.

**수영구체육회**  
탁구 이사회 및 족구회·테니스 정기총회 진행



지난 2월 21일(금) 수영구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탁구협회 이사회를 진행했다. 장소는 수영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안건으로는 2019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20년 사업 계획 보고가 주였다. 각종 사업 결과, 재물, 재무 결산, 감사에 대한 보고로 회의가 진행됐다.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족구협회와 테니스협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두 협회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결과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 보고를 중점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사상구체육회**  
사상구체육회장 당선증 교부식 및 정기총회 진행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수) 사상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사상구체육회장 당선증 교부식'을 진행했다. 이날 당선증 교부식에는 사상구청장과 이사 6명 선거관리위원 7명이 참석했다. 다음 날인 16일(목) 사상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는 '2020년 사상구체육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사상구체육회장과 대의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강서구체육회**  
제2대 김재업 강서구체육회장 취임식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2월 5일(수) 강서구청 1층 대강당에서 '제2대 김재업 강서구체육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부산시체육회장, 강서구청장, 임원진과 체육 동호인 2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인준서 수여, 체육회기 이양, 공로패 수여 및 기념품 전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김재업 강서구 체육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강서구체육회의 발전과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제구체육회**  
연제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2월 13일(수)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감사 2명, 대의원 14명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연제구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등 1건을 보고, 2019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예산(안), 연제구체육회 임원 선임(안), 감사 선임(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체육회 정기 이사회 개최

기장군체육회는 지난 2월 13일(목)에 기장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기장군체육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는 2019년 사업결과보고와 결산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안) 그리고 사업예산(안) 승인의 건과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 부산공공스포츠클럽

###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2020년도 거점스포츠클럽 제1차 이사회 개최



지난 2월 14일(금) 부산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거점스포츠클럽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6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 방향, 거점스포츠클럽 지도자 임용방침 등으로 진행했다.

###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체조 합동훈련 실시



지난 1월 28일(화)부터 31일(금)까지 4일간 부산체육고등학교 체조훈련장에서 2020년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청동초등학교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청동초등학교와 교류전과 평가전을 실시하며 서로의 기량을 겨뤘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연합팀으로 참가해 성과를 내기 위한 훈련을 했다.



## 단신 뉴스

### NEWS. 01

### 2020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2차 공모 실시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30일(월)부터 4월 28일(화)까지 '2020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2차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체육전문단체, 대학교, 체육중·고등학교 등 교육단체, 프로구단,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단체는 공공체육시설 등 안정적인 시설을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지난 4월 27일(월)부터 28일(화)이었으며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총 3단계(서류·발표·현장)의 평가를 실시한 후, 5월 25일(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5년간 대도시형 최대 9억 원, 중소도시형 최대 6억 원을 지원 받는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내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으로 현재 100개소 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 단신 뉴스

## NEWS. 02

### 국민체육진흥공단, “실내 건강운동으로 코로나19 이겨내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집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내 건강운동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서비스인 국민체력100을 운영하는 공단은 지나친 신체 활동량과 에너지 소비 감소는 우울증과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면역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림픽공원 국민체력100 대표체력인증센터에서 “집 안에서도 매일 최소 30분 정도 강하지 않은 수준의 신체활동 또는 격일 20분 정도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기능과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 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걷기, 의자나 바닥에서 앉았다 서기 반복하기 등이 있다. 구체적인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신-하체-상체운동으로 구성된 이 운동은 첫 번째로 전신운동인 버피테스트(1분×10세트)와 제자리걸기(1분×10세트)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하체운동인 브릿지(15회×10세트), 스쿼트(15회×3세트), 런지(15회×3세트) 실시한다.

단, 노약자는 스쿼트와 런지를 의자로 대체한다. 마지막으로 상체 운동은 팔굽혀펴기(15회×3세트), 굽모닝 엑서사이즈(15회×3세트), 뒤로 팔굽혀펴기(15회×3세트), 크런치 사이클(1분×10세트)를 실시한다.

이때도 노약자는 팔굽혀펴기 대신 서서 벽 밀기로 대체하면 된다. 자세한 운동 방법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nfa.kspo.or.kr)를 확인하거나 국민체력100 안내전화(02-410-1014)에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전국 48개 체력인증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별도 공지 시까지 임시 휴관 중이다.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 NEWS. 03

###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김진호, 2020년 ‘IOC 여성과 스포츠’ 아시아대륙상 수상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이자 ‘한국 양궁의 원조 신공’ 김진호(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2020년도 ‘IOC 여성과 스포츠 어워드’ 아시아대륙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2006년 탁구 종목의 이예리사(당시, 대한체육회 선수총장) 선수 이후 첫 수상으로 한국 여성 스포츠인으로는 역대 2번째 수상의 영예다. ‘IOC 여성과 스포츠 어워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여성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매년 월드 트로피 1개와 대륙별(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각 1개 트로피를 수여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김진호 교수가 일찍이 뛰어난 개인 공적을 세우며 우리 사회의 견고한 유리천장을 허무는 데 이바지하고 여성 양궁 메달리스트 모임인 ‘명궁회’ 멤버, 대한양궁협회 홍보 이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며 국내 여성 스포츠 환경 개선에 앞장 선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진호 교수는 예천여고 2학년 재학 당시 197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으며 이듬해인 1979년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30m, 50m, 60m, 개인 종합에 이어 단체전까지 전 종목을 석권하며 5관왕에 등극했다. 또 1983년 로스앤젤레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5관왕,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인전 동메달,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3관왕을 차지한 공로와 1979년 체육훈장 백마장,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한 상훈 등을 높이 평가받아 ‘2018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 NEWS. 04

###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잠정 연기

대한체육회는 대회 참가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보호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던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지난 2월 23일(일) 기준으로 정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체육회는 각 대회 개최지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 내 방역관리 강화가 우선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적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연기되었던 바 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0년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하계방학 중 개최된 사례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후 각 대회 일정을 재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 단신 뉴스

## NEWS. 05

##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스포츠 R&amp;D에 76억 원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비스 R&D 활성화, 창업 촉진, 선도 기업 육성 등을 위해 올해 76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지원, 창업촉진 기술개발사업, 선도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3개 분야로 나뉜다.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은 4개의 지정과제에 대해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실전형 태권도 경기를 위한 스마트 전자 판정 시스템 개발' 과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최대 15억 3,8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안전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능형 실내 환경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과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최대 21억 9,7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개인 맞춤형 생애주기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 개발' 과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대 3년간 27억 9,7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치료 기술 개발' 과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대 3년간 19억 8,6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창업촉진 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스포츠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개 자유 과제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개 과제당 총 5억 7,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1년차 1억 9,000만 원 이내, 2년차에 3억 8,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을 받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2년간 총 13억 2,4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1년차에 4억 4,100만 원, 2년차에 8억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 NEWS. 06

첫 민선 지방체육회장과 함께 한  
'2020년 지방체육회장 한마음 워크숍'  
성황리 마무리

대한체육회가 지난 1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경기도 화성과 진천에서 첫 민선 지방체육회장 약 27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0년 지방체육회장 한마음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자체장의 체육단체 겸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체육계 최초로 선출된 민간 시도체육회장단 및 시·군·구체육회장단은 각 1박 2일 동안 체육단체 조직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며 전문성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프로그램은 체육회 중장기 체육 정책 현안, 체육 혁신 계획, 체육단체 정관, 시·도체육회 주요 규정, 체육단체장의 임무 및 역할 등을 다뤘다. 또한 체육단체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에는 단체별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각 프로그램 2일차에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종목별 훈련장, 숙소, 식당 등을 견학하며 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발자취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이승찬 대전광역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도 법정 법인화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회도 시스템 마련과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중장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희 충남 부여군 체육회장도 "우리 군 체육회장에 선임돼 감회가 남다르다. 체육회장으로서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지 고민이 많았는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주요 업무를 안내받고 체육단체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교육을 들어 체육단체 운영을 위한 방향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출처 : 대한체육회



## NEWS. 07

## 대한민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 확정

대한민국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스위스 현지시간 지난 1월 10일(금) 오후 1시(한국 기준 지난 1월 10일(금) 21시), 제135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총 82표 중 찬성 79표를 얻어 대한민국 강원도가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공식 대회 명칭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Gangwon 2024 Winter Youth Olympic Games)가 될 예정이다. 한국의 유치 성공 요인으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사, 기존 경기장 시설 활용을 통해 올림픽 유산을 이어가려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혔다. 또한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그동안 유럽에서만 개최돼 아시아에서의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최지 선정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대회 유치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대회 유치 절차를 변경한 후, 해당 규정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지난해 10월부터 대한체육회와 강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했던 전문가와 각 기관별 실무진을 중심으로 유치자문지원단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절차를 상세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토마스 바흐위원장은 "올림픽 아젠다 2020에 따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 제안한 계획은 청소년올림픽대회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비용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제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유산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하며, "미래의 올림픽대회와 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에 대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이 보여준 관심은 지속적인 협의, 유연성, 지속가능성, 유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대회라는 IOC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동계) 옥타비우 모라리우 위원장(Mr. Octavian Morariu) 또한 강원도의 대회 유치 계획에 대해 "신뢰도와 확실성이 높고, 대회 개최의 위험이 적으며 기술적으로 훌륭하며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한국과 아시아에 청소년 동계 스포츠를 확산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 북구국민체육센터

## 01 4층 B스튜디오 신규프로그램 개설

체력100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즐겁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신규프로그램(요가, K로빅, 스텝박스, 줌바, 발레핏, 필라테스, 키즈요가, 키즈K팝)을 B스튜디오에 개설했다.

B스튜디오 신규프로그램은 지난 2월 17일(월)부터 접수를 받아 3월 2일(월)까지 진행되었다.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활기찬 여가활동과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방역실시 및 손소독제 비치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운동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북구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클럽, 스튜디오 등 모든 시설물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포함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염성 질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 임직원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고 손을 소독하도록 2층 안내데스크와 3층 헬스클럽에도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감염증 예방수칙도 홈페이지,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게시했다. 북구국민체육센터장은 “회원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 수영 성 인 : 주5회(68,000원), 청소년 : 주5회(6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정원
굿모닝	06:00~06:50	120명
	07:00~07:50	60명
돌고래	08:00~08:50	60명
	09:00~09:50	120명
	10:00~10:50	120명
	11:00~11:50	120명
거북이	15:00~15:50	30명
	17:00~17:50	30명
굿나잇	19:00~19:50	60명
	20:00~20:50	120명
	21:00~21:50	120명

### ⊕ 아쿠아로빅 주2회 : 44,000원, 주3회 : 5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아쿠아로빅	12:00~12:50	화/목(주2회)	50명
	14:00~14:50	월/수/금(주3회) 화/목(주2회)	80명

### ⊕ 방과후 수영 어린이 : 46,000원, 선수반 : 6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어린이 수영	15:00~15:50		30명
	16:00~16:50	어린이종합반	30명
		꿈나무선수반	15명
	17:00~17:50		90명
	18:00~18:50		30명

### ⊕ 주말 수영 성 인 : 45,000원, 청소년 : 40,000원, 어린이 : 3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주말수영(성인)	09:00~09:50	토/일(주2회)	30명
주말수영(어린이)	10:00~10:50	토/일(주2회)	30명

### ⊕ (월)자유수영 성 인 : 48,000원, 청소년 : 40,000원, 어린이 : 30,000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월)자유수영	1부 08:00~08:50	월~금 (주 5회)
	2부 12:00~13:50	
	3부 18:00~18:50	

### ⊕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일	8:00~8:50		
		12:00~13:50		
		18:00~18:50		
	주말	1부 9:00~11:50		
2부 13:00~17:50				
12:00~13:00 수질정화시간(입장불가)				
이용요금	회원		비회원	
	성인	2,300원	성인	3,300원
	청소년	1,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200원	어린이	2,200원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 ⊕ 생활체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교육일	시간	정원	참가비
요가(B)		월~금	07:00~07:50	30	일반 : 57,000원
케이로빅(B)		화/목(주2회)	08:00~08:50	30	일반 : 42,000원
뮤직필라테스(A)		화/목(주2회)	09:00~09:50	20	일반 : 42,000원
줌바로빅(A)		월/수/금(주3회)	09:00~09:50	30	일반 : 47,000원
방송댄스(B)		월/수/금(주3회)	10:00~10:50	30	일반 : 47,000원
스텝에어로빅(B)		화/목(주2회)	10:00~10:50	30	일반 : 42,000원
에어로빅(A)		월~금	10:00~10:50	30	일반 : 57,000원
머슬매니아		월/목/금(주3회)	11:00~11:50	11	일반 : 100,000원
에어로빅(A)		월~금	11:00~11:50	33	일반 : 57,000원
줌바로빅(B)		월/수/금(주3회)	11:00~11:50	30	일반 : 47,000원
케이로빅(B)		화/목(주2회)	11:00~11:50	30	일반 : 42,000원
건강스트레칭(A)	성인 누구나	월/화/목(주3회)	12:00~12:50	25	일반 : 30,000원
뮤직필라테스(A)		화/목(주2회)	12:00~12:50	20	일반 : 42,000원
발레핏(B)		화/목(주2회)	14:00~14:50	30	일반 : 42,000원
요가(B)		월/수/금(주3회)	14:00~14:50	30	일반 : 47,000원
바디체인지(A)		수/금(주2회)	15:00~15:50	25	일반 : 20,000원
바디체인지(A)		월/화/목(주3회)	15:00~15:50	30	일반 : 30,000원
발레핏(B)		월/수/금(주3회)	15:00~15:50	30	일반 : 47,000원
필라테스(B)		화/목(주2회)	15:00~15:50	30	일반 : 42,000원
키즈K팝, 요가(B)		월~금	16:00~16:50	30	일반 : 50,000원
요가		월~금	19:00~19:50	29	일반 : 57,000원
에어로빅(A)		월~금	20:00~20:50	33	일반 : 57,000원
에어로빅(A)		월~금	21:00~21:50	31	일반 : 57,000원

### ⊕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시간	정원	(월)회비
자유 배드민턴(월~금)	06:00~07:50	성 인 : 34,000원	성 인 : 34,000원 청소년 : 30,000원 어린이 : 20,000원
		청소년 : 30,000원	
강습 배드민턴(월~금)	19:00~20:20 20:30~21:50	40명	50,000원

### ⊕ 헬스 클럽

프로그램	운영시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00~21:50	성 인 : 46,000원 청소년 : 41,000원
	주말, 공휴일 19:00~17:50	

### ⊕ G.X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습시간	정원	(월)회비
머슬매니아(월/목/금)	11:00~11:50	10명	100,000원

### ⊕ 감염환인 대상자

합인율	대상자(중복환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 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시
10%	6개월 등록시
5%	3개월 등록시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 서류 첨부을 하여야 합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이용안내

센터 운영시간	평일	06: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센터 접수기간	기존회원	매월 21일~23일
	신규회원	매월 24일~마감까지
센터 정기휴관	매주 첫째주/셋째주 수요일	
문의전화	TEL	051-365-7070
	FAX	051-365-2078

# 영도국민체육센터

## 01 영도국민체육센터 시무식 개최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월 2일(목)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2019년 성과와 2020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직원과의 새해 인사를 나누며 경자년의 첫 날을 힘차게 출발했다.



## 02 영도국민체육센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난 2월 3일(월)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지하 1층 로비에 설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심장 상태를 분석하고 전기 충격으로 심장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 환자의 소생률을 높여주는 의료장비이다. 영도국민체육센터장은 "주기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골든타임 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0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난 2월 11일(화)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의 개념과 사례별 예시, 직장 동료들을 위한 성희롱 대응 방법에 대한 영상 교육을 진행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영도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프로그램

#### 성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6시]굿모닝수영	주5일	성인	06:00~06:50	월~금(주일)	61,000원
	A반			월/수/금	45,000원
	B반	성인	06:00~06:50	화/목	35,000원
[7시]생활수영	주5일	성인	07:00~07:50	월~금(주일)	61,000원
	A반			월/수/금	45,000원
	B반			화/목	35,000원
[8시]새아침수영	주5일	성인	08:00~08:50	월~금(주일)	61,000원
	A반			월/수/금	45,000원
	B반			화/목	35,000원
[9시]몸짱수영	주5일	성인	09:00~09:50	월~금(주일)	61,000원
	A반			월/수/금	45,000원
	B반			화/목	35,000원
[10시]웰빙수영	주5일	성인	10:00~10:50	월~금(주일)	61,000원
	A반			월/수/금	45,000원
	B반			화/목	35,000원
[11시]웰빙수영	주5일	성인	11:00~11:50	월~금(주일)	61,000원
	C반			월/수/금	45,000원
	D반			화/목	35,000원
[14시]어울림수영	14시	성인	14:00~14:50	월/수/금	45,000원
	주5일	성인	16:00~16:50	월~금(주5일)	61,000원
				월/수/금	45,000원
화/목				35,000원	
[18시]직장인수영	주5일	성인	18:00~18:50	월~금(주5일)	61,000원
	A반			월/수/금	45,000원
	B반			화/목	35,000원
[19시]저녁수영	주5일	성인	19:00~19:50	월~금(주5일)	61,000원
	A반			월/수/금	45,000원
	B반			화/목	35,000원
[20시]저녁수영	주5일	성인	20:00~20:50	월~금(주5일)	61,000원
	C반			월/수/금	45,000원
	D반			화/목	35,000원
[21시]야간수영	21시	성인	21:00~21:50	월~금(주5일)	61,000원
	A반			월/수/금	45,000원
	B반			화/목	35,000원

#### 60세이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13시]실버건강수영	13시	만60세 이상	13:00~13:50	월~금(주5일)	61,000원
	A반		13:00~13:50	월/수/금	45,000원
	B반		13:00~13:50	화/목	35,000원
[14시]실버건강수영	C반		14:00~14:50	월/수/금	45,000원

#### 성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아쿠아로빅	A반	성인	12:00~12:50	월/수/금	60,000원
	B반		12:00~12:50	화/목	45,000원
	C반		15:00~15:50	월/수/금	60,000원

#### 어린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유아수영	소그룹 A반	6세~7세	17:00~17:50	월/수/금	100,000원
	소그룹 B반	6세~7세	17:00~17:50	화/목	60,000원
어린이수영	고래	초등	16:00~16:50	월/수/금	35,000원
				화/목	30,000원
	상어	초등	17:00~17:50	월/수/금	35,000원
				화/목	30,000원
	돌고래	초등	18:00~18:50	월/수/금	35,000원
				화/목	30,000원
토요수영	초등	13:00~14:40	토	30,000원	
				15:00~16:40	

#### 월 자유수영 프로그램(1일 1회)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자유수영	A반	성인	07:00~09:00	월~금(주5일)	55,000원
	B반		14:00~16:00	월~금(주5일)	55,000원
	C반		20:00~21:30	월~금(주5일)	55,000원

※ 중간에 쉬지 않고 25m를 수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화를 목적으로 건너 뛰는 행동은 허서는 안 됩니다.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01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전문적 운영으로 흑자운영 전환

2013년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개관 후 강서구가 자체 운영을 결정하고 3년간(2013~2015년) 운영했으나 운영 초기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적자운영이 되자 민간수탁의 형태로 운영 형태를 바꾸었다. 민간수탁의 3년 동안(2016~2018년)에 강서구에서 국민체육센터의 전기 요금을 대납해주고 매년 납부하는 시설 개보수 적립금(5%)을 감해 줘도 불구하고 적자 운영이 계속돼 수탁자의 재선정을 통해 2019년도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운영하게 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수탁 운영한 원년인 2019년도에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도입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 효율적이지 못하고 수요가 적은 프로그램의 폐감과 아울러 회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설과 증설, 다양한 진단을 통한 운영비 절감, 회원 설문조사를 통한 회원 만족도의 제고, 외부의 연구용역사업 등을 통해 강서구에서 대납해주던 전기 요금을 자체 납부하고 시설적립금(총수입의 5%)을 적립하고도 잉여금을 발생시켜 흑자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제공에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공공체육시설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 02 2020년도 시무식 개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2020년 새해를 맞아 희망찬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지난 1월 2일(목) 개최했다. 센터장은 작년 한 해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며 2020년 또한 지역주민들의 체육 복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신년사를 남겼다. 참여 직원들은 신년 계획과 덕담을 나누면서 새해 업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03 2020년도 신설 프로그램 안내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2020년 신설 프로그램인 아쿠아로빅과 어린이 체육교실을 개설, 상시 회원모집을 하고 있다. 아쿠아로빅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수영장 안에서 춤을 추는 프로그램으로 관절을 보호하며 운동할 수 있는 수중 유산소 운동이다. 기존 주 3회(월, 수, 금) 프로그램만을 운영했지만 주 2회(화, 목)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어린이 체육교실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줄넘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공놀이 등으로 이루어진 수업으로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이 학교 밖 친구들과 어울려 건강하고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타 문의 사항 T.051-717-3555)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 수영 프로그램(월~금)

시간	프로그램	회비	정원
06:00~06:50	새벽수영		130
07:00~07:50			30
08:00~08:50			
09:00~09:50	건강수영	성 인 : 60,500원 청소년 : 52,800원 어린이 : 44,000원	70
10:00~10:50			
11:00~11:50			
14:00~14:50			
16:00~16:50	어린이수영		80
17:00~17:50			90
18:00~18:50	저녁수영		120
19:00~19:50			
20:00~20:50			
21:00~21:50			
08:00~09:00	자유수영	성 인 : 48,400원 청소년 : 44,000원	100
12:00~19:00			

### ⊕ 일일입장

시설	요일	시간	대상	회비
수영장	월~금	08:00~09:00	청소년 이상	성 인 : 3,300원 청소년 : 2,700원 어린이 : 2,200원
		12:00~19:00		
	토	09:00~18:00	누구나	
배드민턴	월~금	06:00~10:00	청소년 이상	성 인 : 2,200원 청소년 : 1,500원
	월/목	16:30~18:00		
	화/수/금	14:00~18:00		

※어린이 생존수영기간 중 9:00~12:00 자유수영 입장불가  
※수영장 일일입장 제한 : 토·공휴일 11:30~13:00(수질 정화)  
※수영장 일일입장의 경우 어린이 생존수영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제한 및 시간변동  
※배드민턴(체육관)입장 시 반드시 배드민턴화 착용

### ⊕ 접수 안내(현장 접수만 가능)

구분	기간	시간
기존회원(재등록)	매월 20일~23일까지	07시~21시
신규회원	24일부터	09시~21시
토·공휴일 접수 시		09시~17시

※일반인, 장애인 누구나 이용가능  
※매주 일요일은 휴관일이라서 등록 불가  
※접수기간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모집정원의 50% 미달 등록 시 폐강될 수 있음  
※헬스클럽은 수시접수 가능

### ⊕ 주말 수영레슨(토요일~월 4회 기준)

시간	프로그램	대상	회비	정원
09:00~09:50	토요수영레슨A	초3~성인	60,000원	10
	토요수영레슨B			
10:00~10:50	토요수영레슨C	어린이		
	토요수영레슨D			
16:00~16:50	토요수영레슨E	초3~성인		

### ⊕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회비	정원
13:00~13:50	화/목	44,000원	50
15:00~15:50	월/수/금	60,500원	60

### ⊕ 헬스클럽 프로그램(월~토, 공휴일)

시간	프로그램	회비	정원
06:00~22:00	월~금	성 인 : 44,000원 청소년 : 38,500원 ※수시 접수 가능	500
09:00~18:00	토		
09:00~17:00	공휴일		

★ 헬스클럽 회원에게는 헬스복, 땀수건 지급

### ⊕ 생활체육 프로그램(월~금)

시간	스튜디오 1	스튜디오 2	회비	
06:10~07:00		모닝요가	성 인 : 55,000원 청소년 : 49,500원	
07:00~07:50	바다웨이핑			
09:00~09:50	에어로빅	바다웨이핑		
10:00~10:50	보라춤바댄스	바른자세요가		
11:00~11:50	필라테스	헬빙요가		
12:00~12:50		바다웨이핑		
18:10~19:00	필라테스			
18:30~19:20		파워요가		
19:10~20:00	바다웨이핑			
19:30~20:20		다이어트요가		
16:00~16:50	어린이 체육교실 3층 체육관(화/수/금)			초등학생 : 40,000원
20:10~21:00	라인댄스(월/수/금)			성 인 : 48,000원

### ※ 할인제도 안내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유공자증, 유족확인서)
- 장애인(1~3급) 본인 및 보호자 1인(동일프로그램) : 50% 장애인(4~6급) 본인 : 50%(본인 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증명서 매달 제출)
- 장기수강회원 :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 경로우대(만65세 이상) : 30%(본인 신분증 지참)
- 다자녀가족(유효기간 내 가족사랑 카드 소지자) : 30%
- 2종목 이상 등록회원 : 10%
- 수영 여성회원(만12세~만54세) 보건 할인 : 10%
- 강서구 구민 : 20%(주민등록 등본 지참- 3개월마다 제출)
- 중복할인 불가

⊕ 문의전화 : 051-717-3555

### ⊕ 운영시간

평일	06:00~22:00	공휴일	09:00~17:00
토요일	09:00~18:00	토·공휴일	11:30~13:00 수영장 입장 제한(수질 정화)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이 렛스런파크

우리가족은 렛스런파크로 렛치고~!



사계절 썰매장  
 슬레드힐



짜릿한 승부  
 경주 관람



어린이를 위한  
 승마 체험장



자연체험 학습장  
 빅토빌리지

LetsRun PARK 부산경남

부산 · 경남 최고의 말 테마 가족공원 렛스런파크

www.kra.co.kr | 대표전화 1566-3333